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2023.09.11-17

No.721



K-공감

한·아세안 정상회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K-브랜드' 키우는 류선종 대표의 도전

'배달로봇' 뉴비가 달린다



바다부터 식탁까지 국민건강 지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 실험실

활짝 열린 관광, 내 일을 찾는 여행



2023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온라인 8. 28(월) - 9. 22(금) / www.tourjobfair.com

오프라인 9. 18(월) - 9. 19(화) / 코엑스 D1홀(3층)

Tourism Job Fair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후 원 |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IBK기업은행

| 공동주관 |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GKL 그랜드코리아레저 KOTSA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관광학회 KATA 한국여행업협회 KCA 한국유망론도미니엄경영협회 MICE 한국MICE협회 kapco

“앞에 앉아야 성공한다”



윤영미

SBS 아나운서 출신으로
최초의 여성 프로야구
캐스터다. 현재는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산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주 무모한집을
소개하며 뉴미디어를
향해 순항 중인 열정의
소유자.

미국 뉴욕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둘째 아들과 둘이 집에서 저녁 먹으며 이 얘기 저 얘기 하던 중의 일이다. 아들이 돈이 없어 이삼일 굶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을 찔끔했다. 학비와 용돈을 보내줬으나 워낙 물가가 비싼 뉴욕이라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해 용돈을 벌었다. 약간의 장학금을 받았으나 턱없이 부족했을 터다. 그러나 설마 굶기까지 했을 줄이야. 먼 이국에서 밥을 굶을 때의 그 서러움을 생각하니, 넉넉하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한 형편이 야속했고 세심히 챙기지 못한 미안함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

“왜 이야기 안 했느냐” 물으니 그냥 여기저기 친구들에게 간식 얻어먹고 다니니 버틸 만했고 엄마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으며 또 그제 삶에 있어 단단한 경험이 됐다고 말하는 아들이 일견 대견하게도 느껴졌다.

아들에게 들은 또 한 가지의 이야기. 대학 4학년 1학기 취업설명회 중 들어가고 싶은 건축회사 인턴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워낙 좋은 회사라 학생들이 몰릴 것이 뻔해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반 일찍 도착했다. 설명회 현장엔 아무도 없었고 기업 측 사람들 몇몇이 의자 세팅을 하며 준비 중이었는데 분위기를 보아 하니 일손이 부족한 것 같아 좀 도와드려도 되겠냐고 묻고는 말없이 준비를 도왔다고 한다. 의자 나르고 현수막 걸고 학생들 줄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 스태프 비슷하게 돼 1시간 반 동안 그 기업의 취업설명회 준비를 돕게 됐고 자연스럽게 첫 번째로 인터뷰를 하게 됐다. 그제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세계적인 건축회사에 인턴으로 합격하게 됐다는 이야기.

우리는 남보다 일찍 움직이는 것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해 모자 간에 열띤 대화를 나눴다. 나는 평생 지각·결석을 한 적이 없다. 아나운서로서 오랫동안 방송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뛰어난 실력도 외모도 아닌, 부지런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학창시절에도 나는 만원버스를 타기 싫어 새벽같이 나가 학교 교문을 두드려 경비아저씨를 깨웠고 아무도 없는 빈 교실의 정적을 즐겼다. 방송국 재직 시절에도 눈이 많이 오면 다음날 늦을까봐 밤에 출근해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며 새벽방송을 준비했다. 평소에도 라디오뉴스가 펑크 날까봐 알람을 세 개나 해놓고, 뉴스 시간에도 일찌감치 스튜디오에 도착해 연습을 하곤 했다. 잘나가는 아나운서는 아니었지만 성실한 아나운서로서는 인정을 받았던 것 같다.

개인적인 약속조차도 나는 늦은 적이 거의 없다. 일찍 자리 잡고 앉아 상대를 기다린다는 건 일단 기선을 잡는다는 것이다. 험레벌떡 들어와 당황하고 사과하는 순간 점수는 깎인다. 대학에서 오랜 동안 강의를 할 때도 보면 일찍 와 앞자리에 앉아 눈 초롱초롱 뜨고 질문하는 학생에게 눈길도 더 가고 점수도 더 가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할머니께 들은 말을 전한다.

“어디 가든 앞에 앉아라. 앞에 앉아야 성공한다.”

일찍 일어나 멀리 날아가는 새가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세상이다.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렵다면 일찍이라도 나가라. **K**



당신의 저녁은 안녕하십니까?

풍속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그린 그림입니다. 고찬규의 <귀가>는 우리 시대의 풍속을 읽을 수 있는 귀한 그림입니다. '귀가'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그림 속 주인공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막 씻고 나왔습니다. 귀가하는 길이 얼마나 더웠던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목욕부터 했습니다. 의자에 걸쳐 둔 양복과 넥타이가 급하게 욕실로 달려간 상황을 말해줍니다. 시원하게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러닝셔츠와 파자마를 입은 주인공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탁자 위에는 퇴근하면서 사온 두 개의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검은 봉지에는 라면과 나무젓가락과 바나나우유가, 흰 봉지에는 빵튀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목에 걸친 수건으로 머리의 물기를 털어내면서 라면을 끓여 먹겠지요. 다리를 쭉 뻗고 앉아 TV를 보면서 빵튀기와 바나나우유도 먹을 것입니다. 그러다 잠자리에 들 때쯤이면, 이만하면 잘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거릴 것입니다. <귀가>는 혼자 사는 청춘의 쓸쓸한 저녁을 엿볼 수 있는 풍속화입니다. 주인공의 모습이 배우처럼 잘생기지 않아서, 사는 모습이 마치 옆집을 들여다본 듯해서 더욱 눈길이 가는 작품입니다. **K** 조정욱 미술평론가

고찬규, <귀가>, 132×163cm, 한지에 채색, 2019년



2023.09.11-17

No.721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K-공감

발행일 2023년 9월 11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발행인 박보균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삼화인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 851-0183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커버스토리

바다에서 식탁까지 국민건강 지킨다

06

-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 실험실
- »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중삼중 방사능 검사
- »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1440억,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투입



표지사진 C영상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K-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세대공감 긴세대의 생각

- 01** **윤영미**
 '앞에 있어야 성공한다'

공감갤러리

- 02** **고찬규**
 〈귀가〉

정책 돋보기

휴게실 라운지

- 21**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외

알쓸정책

- 22** **고속도로** 법규 위반,
드론이 찍고 시가 신고한다 외

돈 되는 정책

- 26** **추석 성수품** 구매 할인 지원

현장

- 27**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개최

정책

- 28** **2027년까지 세계 5위**
정보보호산업 강국으로

한·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으로 공동 번영 추진”



44



52



56

포커스

30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10월 2일 임시공휴일

문화 현장

34 거대한 반전 만든 5일의 여정,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기록을 만든다

김형자의 친절한 과학정책

42 콩 실크·옥수수 내의... 컨셔스 패션이 온다

K-피플

44 브랜드 발굴하고 키우는 인앤아웃코퍼레이션 류선중 대표

정책현장

48 '배달로봇' 뉴비가 달린다

우리 아이 안전지대

52 서울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딩가동'

캠퍼의 주말여행

56 경기 연천 고대산자연휴양림

웹툰 홍성윤 기자의 좌충우돌 쌍둥이 육아

60 쌍둥이의 변덕

몸건강 마음건강

61 좁은 교통의 통로를 지나더라도

함께 즐기다

62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손열음 외

64 독자 공감

365일 불 켜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완벽 차단 안전하지 않은 식품 국민 식탁에 안 올린다”

9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일식당의 벽에 붙은 원산지 표기판에 한 번씩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렀다. 대부분 국내산 수산물이었지만 도미는 일본산이었다. 초밥을 만들고 있던 주인에게 “일본산이라고 적어두면 꺼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고 물어봤다. 그는 “먹어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사람은 꽤 많은데 ‘방사능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것’이라고 알려주면 거의 대부분은 그냥 먹는다”며 “나 역시 방사능 검사를 믿고 재료를 들여오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일본산 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거치기 때문이다. 일본산이 아닌 타 국가산 수산물은 품목과 생산 국가에 따라 검사 빈도가 다르다.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방사능 검사를 거쳐야 한다. 검사 결과 조금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증명서를 제출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 부산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 장호원 연구사는 “추가 핵종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 대개 반송한다”며 “지금까지 추가 핵종증명서가 제출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에서는 일본산 수산물뿐 아니라 농축산물, 타 국가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농약과 미생물 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 중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량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사가 방사능 검사에도 투입된다. 장 연구사와 함께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정 연구사로부터 방사능 검사 과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1만 초의 안전

9월 1일 오전 10시 어김없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시작됐다. 검사는 항구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전처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수산물이 담긴 봉투에는 검체번호, 검체명, 의뢰기관과 조사기관이 뚜렷하게 적혀 있다. 이날 검사해야 하는 수산물은 일본 오카야마현에서 온 병어, 야마구치현에서 온 쥐치 등이다.

여기저기서 쿵쿵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 칼로 수산물을 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냉동상태의 수산물은 잘 썰리지 않기 때문에 망치로 두들겨 채취한다. 김 연구사는 “사람들이 먹는 부분을 모두 검사에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검사의 시료가 될 병어는 냉장돼 있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손질됐다. 먹지 않는 머리 부분만 빼고 토막내 자른 병어 살은 잘게 갈린다.

시료를 분쇄기로 잘게 갈아 균질하게 만드는 것을 ‘전처리한다’고 표현한다. 전처리된 병어는 방사능 검사를 위한 전용 비커에 담겼다. 1kg 이상 가득 담아야 검사를 진행할 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 김은정 연구사가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있다. 장 연구사는 “크기가 작은 수산물 경우에는 검사를 하기 위해 꽤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꼭꼭 눌러 균질하게 담은 시료는 옆 실험실로 옮겨진다.

넉직한 실험실에는 커다란 기계들이 놓여 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다. 식품에서 나온 방사능을 측정하는 기계다. 1대당 무게가 1.5톤에 달하는 무거운 장비다. 부산지방청에만 분석기가 17대 마련돼 있는데 무게 때문에 분산돼 검사가 진행된다.

실험실에 있는 장비는 모두 품질관리기준에 엄격하게 맞춘 것들이다. 시료의 무게를 재는 저울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다. 이 저울에 올려지는 것은 전처리를 마친 시료인데 중요한 것은 무게보다 부피다. 통에 일정량을 꼭꼭 눌러 담아야 시험을 할 수 있다.

김 연구사가 시료를 기계에 담았다. 기계를 작동시키자 로봇 팔이 시료를 차폐통에 넣었다. 주변의 방사선 간섭을 피하고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납으로 만들어진 차폐통에서 검사가 시작됐다. 세슘-134, 세슘-137, 요오드-131이 검출되는지 측정하는 검사는 1만 초, 약 2시간 47분이 걸린다. 검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표시된다. 장 연구사가 검사 결과를 읽는 방법을 설명했다.

분석기가 측정하는 것은 시료에서 나오는 에너지다.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감마선 에너지를 1만 초 동안 측정해 결과를 스펙트럼으로 표시한다. 즉 특정 핵종이 계속해 에너지를 방출한다면 특정값이 그래프에 표시되는 식이다. 세슘-137을 예로 들자면 세슘-137이 검출되면 661.62킬로전자볼트(KeV) 구간의 그래프가 솟아오른다. 연구사들은 그 값을 계산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은 kg당 0.5벵크렐 이상만 검출돼도 추가 핵종증명서를 요구한다. 김 연구사는 “매번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 촉각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이 검사 과정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엄밀하게 규정돼 있다. 일반 국민도 식약처가 운영하는 누리집 ‘식품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분야 공전’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장이 각종 기준과 규격을 정리해놓은 것을 말한다. 김 연구사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각종 기구와 과정이 방사능 검사를 하기에 적절한지 점검하고 인증한다”며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검사이지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많다”고 말했다.

“까다롭게 관리한다”

이날 검사한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방사능이 일절 측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적합’과 ‘부적합’을 가르는 기준은 세슘의 경우 kg당 100벵크렐, 요오드는 kg당 100벵크렐 이하여야 한다. 단 영유아용 이유식 등 영유아용 식품과 유제품·유가공품은 검출되는 세슘이 kg당 50벵크렐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국제기준에 비춰봐도 매우 엄격한 것이다. 세슘을 예로 들었을 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은 kg당 1000벵크렐이다. 미국에서는 kg당 1200벵크렐, 유럽연합(EU)에서는 kg당 1250벵크렐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기준이 엄격해진 계기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89년부터 국내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는데 이때에는 요오드는 kg당 300벵크렐, 세슘은 kg당 370벵크렐이었다. 그러다 2011년 3월 11일 원전 사고가 있고 나서 3월 14일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시작했다. 5월부터는 농산물·가공식품 등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 추가 핵종증명서를 요구했다.

#투입하기

#결과 확인하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법률에 정해진대로 엄격하고 정확하게 진행된다. 김은정 연구사가 균질화된 시료를 기계에 투입해 1만 초 동안 측정된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

방사능 검사 기준은 더 엄격하게 적용됐다. 2012년 4월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세슘 기준 kg당 100벵크렐 기준이 적용됐고 이 기준은 2013년 9월에 모든 국가 식품으로 확대 적용됐다. 일본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이 수입 금지된 것도 이때부터다.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과정은 꽤 까다롭다. 일본산 수산물이 반입되면 식약처 검사관이 생산지증명서와 검사 증명서를 잘 갖추고 있는지 154개 항목의 서류 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검사관은 수입제품의 수량 등을 직접 확인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권고하는 방식에 따라 수산물의 외관 등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정밀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체를 무작위로 채취한다. 여기서 채취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정밀검사, 즉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연구사들도 대부분 관련 전공자들인데 교육을 거쳐서 업무를 맡고 있다. 김 연구사 역시 대학에서 생물공학을 전공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입장에서 먹거리의 안전 문제는 더욱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김 연구사는 “시중에 유통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사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는 이중삼중의 규제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방사능 검사는 365일 쉬지 않고 진행된다. 김 연구사는 “예전에는 휴일에도 출근해 시료를 차폐통에 넣곤 했는데 로봇 팔이 대신해주는 요즘은 시료만 준비해두면 휴일을 가리지 않고 검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진행되는 방사능 검사는 세계 어느 곳보다 엄격하고 정밀하다는 것을 강조한 김 연구사는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것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다시 한번 힘줘 말했다. **[K]**

김효정 기자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 언제까지

“국민이 완전히 안심하기 전까지 수입금지 조치 해제는 절대 없다”

2013년 9월부터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 등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됐다. 가나가와·도쿄·홋카이도·에히메·구마모토·미에·가고시마·아이치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검사증명서와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산물은 15개 현에서 생산되는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축산물은 일본산 육류 및 원유는 모두 수입이 금지됐다. 특히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가 필수다. 검사 결과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증명서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일본은 2015년 5월 이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2019년 4월 11일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현재까지 수입제한 조치는 지속돼오고 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입제한 조치를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월 1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후쿠시마 8개 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수입금지”라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는)그럴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수입금지를 하게 된 요인이 과학적으로 해소되기 전이라는 점과 국민이 완전히 안심하기 전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7월 10일 브리핑에서도 박 차장은 “수입금지 조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수입금지 조치 해제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중삼중 방사능 검사

우리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물 썰 틈 없는 검사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는 크게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로 나뉘어 운영된다.

생산단계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이 10개 지방자치단체와 양식장, 위·공판장에서 모든 어종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2011년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의 모든 위판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실제로 위판이 실시된 위판장은 전국 214곳 중 178곳이었는데 이 178곳 모두 검사가 실시됐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는 위판을 하는 모든 위판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목표는 2024년 생산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4만 3000건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1만 8000건을 실시하고 나머지 2만 5000건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2023년 실시하는 검사는 1만 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38대인 검사장비를 64대로 확충하면 1만 8000건의 검사는 무리 없이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사능 검사는 8월부터 연말까지 약 9000건이 실시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관을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지정하려면 검사에 적합한 기계와 기구를 비치해야 하고 검사능력 평가 등 엄격한 심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8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이 민간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중삼중의 방사능 검사 체계

정부는 단지 검사 건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산물이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검사 체계를 꼼꼼히 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양식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박 차관은 8월 25일 일일브리핑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따라 어업인의 양식수산물 출하 전 방사능 검사 수요가 평년

수산물 안전을 확인하는 방법

초록색이면 안전! 신호등 색깔 확인하세요

생산·유통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먼저 생산단계의 수산물 검사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www.mof.go.kr/oceansafety)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누리집에서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보를 3단계 신호등 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내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식품에서 세슘이 kg당 100벵크렐, 요오드가 kg당 100벵크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단 영유아 식품의 경우에는 kg당 50벵크렐 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에서는 kg당 100벵크렐을 초과하면 빨간색, kg당 50벵크렐 초과 100벵크렐 이하면 노란색, kg당 50벵크렐 이하면 초록색으로 표시된다. 유통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radsafe.mfds.go.kr/radsaf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유통식품 방사능 검사현황' 게시판에 매일 실시되는 유통단계 검사 결과가 게시된다. 식약처가 검사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도 누리집에서 함께 확인 가능하다.

정부 검사계획 대비 대폭 증가했다"며 "민간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양식수산물이 출하되기 전 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양식장 수는 약 1만 2000개다. 이를 250개 단위해역으로 나눠 출하 예정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 전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양식수산물의 출하 예정 시기를 고려해 검사 일정을 확정하고 양식장으로 전문인력을 보내 직접 시료를 채취하게 한 뒤, 민간 방사능 검사기관으로 시료를 보내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양식 어업인에게 통보되며 안전성이 확인됐을 때 출하되도록 한다. 박 차관은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관리하므로 전 해역에 대한 출하 전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위판장에서도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가 추가된다. 8월 11일 일일브리핑에서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수산물이 유통된 이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는 기존 검사와 병행해 수산물 유통 전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신속검사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신속검사는 전국 43개 위판장에서 실시되는데 이들 위판장이 판매하는 수산물은 전체의 80%에 달한다. 전 실장은 "해당 위판장에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생산한 127개 품목 대부분을 위판한다"고 설명했다.

위판장 유통 전 검사는 경매 전날이나 당일 새벽 시료를 채취해 이뤄진다. 전문인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시료를 가까운 방사능 검사시설로 이송하면 민간 전문기관에서 신속검사를 실시한다. 신속검사는 대개 90분에서 2시간 이내에 결과가 도출된다. 빠르게 얻어낸 검사결과는 위판장

관리자에게 통보되고 위판장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외부로 유통되도록 한다. 검사 품목은 조업 상황 등을 고려해 많이 잡히는 품목 위주로 미리 선정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도 꼼꼼하게

생산단계에서 방사능 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만 유통단계에서도 방사능 검사는 꼼꼼히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방사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에 따라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시·도 식품위생부서가 마트와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을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7월 6일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새우, 오징어, 고등어, 조기, 갈치 등에 대해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품들을 꼼꼼히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유통단계에서 약 4만 6000건의 검사가 이뤄졌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유통단계의 방사능 검사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검사 품목을 40개에서 80개로 늘릴 계획이다. 검사 건수 또한 확대한다.

이처럼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모든 수산물의 안전은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다. 박 차관은 9월 4일 일일브리핑에서 "정부는 지자체,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검사 체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김효정 기자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1440억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투입

정부가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4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 중인 640억 원에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 예비비 800억 원을 합한 것이다. 2024년도 예산안에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 1338억 원이 편성돼 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5일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우리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과 소비자들까지 살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은 먼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쓰인다. 박 차관은 9월 1일 일일브리핑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구매한 금액의 30%, 9월 11일부터는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환급행사는 일시적으로 명절이나 휴가철을 맞아 짧게 진행됐다.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8월 3일부터 6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28곳에서 진행된 환급행사도 마찬가지다. 그러던 것이 확대된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지시한 바에 따른 것이다.



8월 6일 서울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고 있다.
사진 뉴스1

전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하기

8월 31일부터 연말까지 매일 실시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시행된다.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입하면 일주일에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행사다. 이전까지는 구매 금액의 30%를 돌려받았지만 9월 11일부터는 40%를 돌려받는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점포주의 서명과 국내산 구입품목을 기재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영수증을 들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을 방문하면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평일은 같은 주에 구입한 수산물 영수증이라면 날짜에 상관없이 환급이 가능하지만 주말에는 당일 영수증에 한해서만 환급된다.

윤 대통령은 당시 동행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수산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또 있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전국 741개 전통시장 등에 있는 9300여 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 행사를 진행한다. 비플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20%를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예산은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할인행사에도 투입된다. 전국 14개 마트와 소매점, 1800여 개 점포와 24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하는 수산물 할인행사는 올해 초부터 매달 개최되고 있다. 9월 행사는 8월 31일부터 시작돼 9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정부가 지정한 11개 품목과 참여 업체가 추가로 지정한 5개 품목을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행사 등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산시장에서는 축제도 열린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9일 서울 강서수산물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인천 소래포구시장, 서울 노량진수산물시장,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수산시장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축제에서는 제철 수산물 시식회, 문화공연, 맨손 물고기 잡기, 수산물 퀴즈대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마련된다.

우리 바다도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7월 24일부

터 우리 바다의 방사능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가까운 바다 75곳, 먼바다 33곳 등 총 108개 정점에서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바닷물이 채취되고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제공되는데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다. WHO의 먹는 물 기준은 세슘의 경우 리터당 10베크렐 이하, 삼중수소는 리터당 1만 베크렐 이하여야 하는데 9월 4일 발표된 12개 정점의 시료분석 결과를 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7~0.082베크렐 미만으로 검출됐다. 삼중수소는 리터당 6.4~6.7베크렐 미만으로 역시 매우 낮은 수치다.

한편 정부는 일일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발표하고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정화된 오염수가 바닷물과 결합하는 장소인 해수배관 헤더의 삼중수소 농도와 방출 지점으로부터 3km 이내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매일 확인한다. 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이뤄지고 있다. 해수취수구, 상류수조, 이송펌프 등에서 검출되는 방사선량을 확인하고 오염수가 얼마나 이송되고 방류되는지도 점검한다. 이를 통해 만약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한결 같은 입장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9월 1일 일일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방류는 국제기준이나 과학적 원칙에 비춰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정부의 기본 기조로 유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생기고 일본이 발표한 방류 계획이 당초와 다르게 진행된다면 국제분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한·아세안 연대구상으로 공동 번영 추진 한·일·중 협력은 아세안+3 새 도약의 발판”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9월 5일(현지시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개최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고 9월 6일부터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공식 방문으로 한·인도네시아 간 양자 회담도 열렸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캐나다 등 각국 정상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고



한·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

- 9월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착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 9월 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한·아세안 시 청년 페스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양자 회담
한·아세안 정상회의 갈라 만찬
- 9월 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 9월 8일** G20 정상회의 참석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이 9월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뉴스스

9월 9일부터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했다.

인도네시아 일정의 핵심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8월 한·미·일 간에 이뤄졌던 ‘캠프 데이비드’ 공조의 영향권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세안 신규 협력 분야 발굴”

윤 대통령은 9월 6일 자카르타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를 위

해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의 해양안보 역량을 지원 하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정상회의를 하고 아세안에 대한 3국의 지지와 협력 강화 방침을 천명했다.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 첫 다자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선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아세안 전략을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심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이행의 출발점인 셈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참석국들은 이날 ‘AOIP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
많은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다. ‘AOIP’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말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주도로 2019년 채택한 아세안 차원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으로 아세안 중심성·포용성·개방성·투명성 등의 협력 원칙과 4대 중점협력 분야(해양, 경제, 연계성, 지속가능 개발)를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22년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KASI)이 그동안 협력의 외연과 깊이를 확장해온 것을 환영하면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아세안 중심성’과 ‘AOIP’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세안 중심성’은 아세안의 대외적 메시지로 미중 전략 경쟁의 중심에 놓인 아세안 국가들이 지역 국제관계에서 자신들의 역

할과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아세안에 특화된 우리의 지역정책으로 윤 대통령이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개한 것이다. 아세안과 호혜적인 실질적·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국과 아세안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강력한 연대와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하면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바탕으로 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일환으로 아세안과 사이버안보 및 초국가범죄 대응은 물론 퇴

윤석열 대통령이 9월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역함정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해양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아세안 청년들의 인공지능(AI)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2024년부터 시작하고 메콩강 유역 4개국(캄보디아·라오스·태국·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여방안도 발표했다. 대응을 위해서는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2023~2026년, 1900만 달러)’을 통한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백신 생산, 치료제 개발 협력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24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고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각국 정상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아세안 정상들의 지지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라며 “대한민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

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

“혁신엔 국경 없다…인류 문제 극복에 치열하게 도전해주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현지시간) 미래혁신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아시아 청년들을 만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적과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적 아이디어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 행사에 참석해 “혁신에는 국경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여러분과 혁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5년간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AI) 개발, 창업 경진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아세안 10개국에 디지털 역량 강화 스쿨을 만들어 인재를 키워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아세안이 글로벌 어젠다에 필요한 데이터를 함께 모아가고 이를 기반으로 AI를 통해 혁신적 서비스도 함께 개발할 것”이라며 “교육, 보건의료, 디지털 디바이드 등 인류 공동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도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혁신은 개별 국가와 아세안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유 확장과 행복의 증대, 세계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AI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등 디지털 신기술·서비스 분야에서 아세안 측 협력 파트너 발굴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스를 방문해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에 대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추진키로 합의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된 행사”라며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디지털로 공동 번영을 이뤄 아세안과의 연대를 확산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2024~2028년까지 5년간 총 3000만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데이터 공동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인적 역량 강화 ▲인공지능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 중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열린 ‘AI 피칭대회’에는 아세안의 젊은 기업인·청년들로 구성된 132개 팀이 참여해 경쟁을 펼쳤으며 현장에서 최종 수상자 3개 팀이 선정됐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텔콤 본사에서 열린 ‘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월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겔라 봉 카르노 경기장 인근 공원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의 갈라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많은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이고, 이 자리에 계신 아세안 정상들께도 친숙한 도시일 것”이라며 “부산이 다시 한 번 인·태지역,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일·중 협력 재개 위해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이른 시일 내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JCC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듯이 한·일·중 3국 협력의 활성화는 아세안+3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세안+3는 아세안 국가들과 동아시아 3국이 함께하는 역내 회의체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9개 회원국과 윤 대통령,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 리창 총리가 각각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성장의 중심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아세안+3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국·일본·중국 3국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아세안+3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아세안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기여할 아세안+3 협력 방향으로 ▲회복력 강화 ▲미래 혁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등을 제시했다. 우선 회복력 강화 분야에서 윤 대통령은 ‘아세안+3 통화스와프’를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교역·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세안+3 비상쌀 비축제(APTERR)’ 최대 공여국으로서 2023년 4500톤을 공여하고 향후 공여 물량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진행 중인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계획도 언급했다. 미래 혁신과 관련해서는 아세안+3 정상들이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은 아세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회원국 간 전기차 보급 촉진과 관련 인프라·연구·인적자본 확대 등 협력 모색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수립 지원, 2024~2028년

인도네시아 언론 인터뷰

“한·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핵심 파트너, 실질적 지원·호혜적 협력 계속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9월 5일, 인도네시아 최대 일간지 <콤포스(Kompas)>가 윤 대통령과 서면 인터뷰를 공개했다.

‘아세안·한국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은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년이 되는 해로 이제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할 최상의 시기가 된 것”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의 파트너십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단기간 내에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루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성취하면서 자유·인권·법치를 정착시킨 나라”라며 “이러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세안을 핵심 파트너로 삼아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아세안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국방, 방산 등 안보 분야에서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강점인 디지털과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미래 협력사업을 제안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아세안의 인·태 전략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간 연계와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아세안이 표방하는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인·태 전략이 협력 원칙으로 내세우는 포용·신뢰·호혜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유럽과 대서양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특히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험은 아세안 국가들에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맞아 ‘인도네시아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핵심 파트너’를 강조하는 광고 영상이 자카르타 시내에서 상영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태 지역에 규칙 기반 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기반으로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체를 출범했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다시금 표명했고 아세안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서로 공조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를 위해 한국은 3국 간 협의체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한·일·중 3국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아세안, 한·메콩, 한·BIMP-EAGA 각각의 협력기금에 대한 한국의 연간 기여를 2027년까지 2배로 확대할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들도 각종 정책·제도 개선과 혁신을 추진하고 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계속 호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은 아세안의 수요가 높은 디지털,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4차산업 혁신의 길을 아세안과 함께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3000만 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 추진 의사 등도 밝혔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아세안+3 과학영재 학생 캠프를 오는 12월 한국에서 개최하고 경남 창원 의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와 정부 초청 장학사업(GKS) 등을 통해 인재 양성을 지원키로 했다.

“북핵 안보리 결의 위반, 실존적 위협”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사흘째인 9월 7일 윤 대통령은 EAS에 참석했다. EAS는 2002년 6월 제6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동아시아 비전그룹과 동아시아연구 그룹이 권고한 것으로 2005년 출범했다. 아세안

인도네시아 동포 간담회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9월 5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공연팀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팬데믹 기간 ‘고동로용’ 정신 보여준 동포 자랑스러워”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9월 5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를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180여 명의 동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을 대표하는 경제 대국으로 우리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0년 전 수교 당시 2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던 한·인도네시아 연간 교역이 작년에 260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만 명의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연간 수십만 명의 우리 국민이 인도네시아를 찾는다”며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과 함께 우리 동포사회의 외연과 규모도 확대됐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상부상조’, 또 인도네시아의 ‘고동로용(Gotong Royon·함께 어깨에 짚어진다)’ 정신을 보여줌으로써 인도네시아 내의 모범적인 공동체로 자리매김한 2만 5000여 명의 동포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모국과 동포사회를 긴밀히 연결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다문화,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현지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동포 간담회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무지개합창단’이 동요 ‘오빠 생각’과 ‘아름다운 세상’을 합창했다. 공연 종료 후 윤 대통령 부부는 무지개합창단 단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3과 다른 주제를 논의하는 그룹으로 전략·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 대화의 장이다. 참여 국가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러시아 등이다.

윤 대통령은 EAS에서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를 결의한 상임이사국은 북한 도발 문제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으로 이들 중 EAS 회원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이다.

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요청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침공은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0여 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험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 7월 키이우에 방문했을 당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기반의 해양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고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강정미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원 2024, 세계 스포츠 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될 것”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9월 3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 등 주요 경기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원2024 조직위원회 진종오 위원장, 김철민 사무총장,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강릉시청 컬링팀 ‘팀킴’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대회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스피드스케이팅장에서 선수들이 사용할 라커룸, 메디컬룸 등을 둘러본 뒤 강릉컬링센터에서 경기장 빙질 등을 확인했다. 강릉컬링센터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강릉시청 소속 ‘팀킴’ 컬링팀과 강원2024 홍보대사 발레리나 김주원 씨, 배우 박재민 씨 등이 함께했다. 박 장관은 “강원2024는 세계 스포츠 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대회가 될 것”이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검증된 시설을 더 짜임새 있고 세심하게 점검해 마지막까지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통신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람·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원 웰페어’ 실현”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9월 2일 경기 고양시 ‘스타필드 고양’에서 열린 반려동물 문화축제 ‘놀멍 뛰하니’에 방문했다. 이 행사는 시민들에게 재미있고 쉽게 법과 제도의 개선사항을 알리고 수의사 체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 장관은 펫테크,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을 시민들과 함께 관람했다. 또한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알리는 정책체험과 반려동물 행동심리치료가 알려주는 반려견 행동지도, 반려견 장래물 달리기, 반려동물 건강검진, 오엑스(O/X) 퀴즈 등에 참여했다. 정 장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미리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원 웰페어(One-Welfare)’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명승 통신원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폴란드 MSPO 주도국 의미 특별, 방산협력 공고히 할 것”

사진 방위사업청



엄동환 청장은 9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 참석했다. 올해 31회째를 맞이한 MSPO는 프랑스 파리 유로사토리, 영국 런던 방위·보안장비 전시회(DSEI) 등과 함께 유럽에서 열리는 최대 방산전시회로 다른 방산전시회와 다르게 주최국과 주도국 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 행사에선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선정됐다. 우리나라가 MSPO 주도국 자격으로 참가한 것은 7월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국빈 방문 후속 조치라 더 뜻깊다. 엄 청장은 9월 5일 개막식 축사를 맡은 데 이어 9월 6일 한·폴란드 방산협력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엄 청장은 “현재 양국이 처한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MSPO 주도국 참가의 의미가 매우 특별하다”며 “자유·인권·평화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폴란드와 방산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정현 통신원

고속도로 법규 위반 꼼짝마! 드론이 찍고 AI가 신고한다

정부가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드론으로 촬영한 법규 위반 행위를 인공지능(AI)이 자동 선별한 후 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3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한 후 2024년쯤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비롯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국도교통부는 9월 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추진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교통약자 대책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156개인 우회전 신호등을 계속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우선되는 보행자우선도로는 39개를 더 만들어 2023년 말까지 총 205개를 구비기로 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국도 60개, 지방도 2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는 경찰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버스업체 200곳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집중 실시해 사고발생 요인을 없앤다. 고속도로 정체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지정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선별적 단속도 계속한다. 아울러 행락철 대형버스의 법규위반 단속,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를 예방한다.

경부고속도로 모습. 사진 뉴스스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포함

**7월 폭우 피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선지급**

소상공인도 재난피해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9월 5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자연·사회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 5월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그리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장마 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부모급여 상향 지급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매달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연령에 따라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5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 ‘매달 50만 원’에서 ‘매달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0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매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주어진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 최대 5배로 상향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설립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해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높인다.

이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는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특별자치시와 시는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읍·면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현실에 맞게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사진 뉴스시스

다만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 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 원 이상, 읍·면은 2억 원 이상으로 정했다.

개인용 국채 발행 최대 1억 투자 가능

2024년부터 개인의 국채투자가 전용계좌 개설을 통해 소액으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판매대행기관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 원이며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 원이다.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한다.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의 14%를 분리과세하는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만기일에 원금·이자를 일괄 받고 만기 보유 때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후부

터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며 상속·유증·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며 매월 20일 액면발행된다.

노후 대비를 위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 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50세에 20년물을 5000만 원에 일시에 매입했다면 70세에 1억 원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으며 만기 전 사망 땐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 가능하다.

만일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자녀가 0~4세 때 매년 20년물 500만 원을 매입하면 자녀 나이 20~24세에 해마다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 나이 10세 때 10년물 3000만 원을 일시 매입하면 자녀가 20세가 되는 시점에 4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무공해차만 출입 가능 북한산에 야영장 개장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만 출입할 수 있고 다회용기·전기그릴을 빌려주는 ‘탄소중립형’ 사기막야영장이 북한산국립공원에 최초로 들어선다.

국립공원공단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국립공원 내 조성된 사기막야영장이 9월 21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3만 5000㎡ 부지에 야영지 27동과 카라반·하우스형 솔막·산막텐트 등 체류시설 43동을 갖췄다.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춰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

정식 개장에 앞서 9월 16일부터 19일까



북한산국립공원에 국내 최초로 들어선 탄소중립형 사기막야영장. 사진 환경부

지 실시하는 시범운영 기간에는 무료다. 무공해차 외 차들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북한산성 제1주차장에 주차하고 야영장을 운행하는 무료 전기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여객선 교통정보 이젠 모바일에서도 확인하세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
앱 화면

올 추석연휴 기간 여객선을 이용해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는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 개발해 지난 4월부터 해양교통안전정보시

스템 누리집(mtis.komsa.or.kr)에 서비스 제공 기능을 추가하고 9월 초 모바일 앱 개발을 마쳤다.

모바일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자주 이용하는 기항지·여객선·항로의 운항 여부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능도 추가돼 이용자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인불명’ 위로금 최대 3000만 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거나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지급했던 위로금 1000만 원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자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제도 시행 이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사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이처럼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9월 6일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소득자 146만 명 대상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돼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홈택스(PC, 모바일),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광성 기자

추석 성수품 구매 할인 지원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일 생각에 설레지만 연일 치솟는 물가를 생각하면 근심이 커지는데요. 명절 상차림에 도움 되는 정부의 할인 지원 정책을 알려드릴게요.

성수품 싸게 사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고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같은 달 대비 3.4% 상승했어요.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으로 과일류와 채소류 가격이 오른 영향이에요. 이에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 판매를 지원해요.

먼저 9월 28일까지 이어지는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에서는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을 할인 판매해요.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돼지고기·밤·대추 등 추석명절 20대 성수품을 비롯해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정부가 1인당 2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고 참여 업체가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에요. 특히 고사리·도라지·전복·마른 김 등 제수용품도 할인 판매하니 높은 물가에 차레상 차리기 걱정됐던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되겠죠?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GS리테일·수협바다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중소형 마트 26곳과 11번가·마켓컬리·쿠팡·우체국쇼핑·수협쇼핑·남도장터 등 온라인 쇼핑몰 33곳을 이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농할·수산상품권'을 이용해보세요. 20~30%나 저렴하게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예요(1인당 3만~4만 원 한도). 스마트폰에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전통시장 내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한 전용 농할상품권은 9월 1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에요.

아울러 149개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말까지 진행해요. 하루 2만 원 한도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전국 수산물시장도 참여해요. 서울 노량진수산물시장, 부산 자갈치시장·신동아시장, 충남 대천항수산물시장, 전북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제주 동문수산물시장·동문재래수산물시장 등에 방문해보세요. 우리 수산물을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2만 5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8월부터 노량진수산물시장, 가락시장 등 수산물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것 아시죠? 환급받은 상품권은 바로 다른 수산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어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안내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밖에 주변 장터 정보나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등이 궁금하다면 '농산물유통정보' 누리집(www.kamis.or.kr)에 둘러보세요. 알뜰한 장보기로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K** 조윤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 및 수산물시장에서는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시장의 모습. 사진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9월 4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축하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 발전 디딤돌로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개최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이때, 고향의 소중함과 가치를 새겨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9월 4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라는 주제로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된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고향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동시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찾다 ▲마음 속 고향의 의미를 일깨우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유하다 ▲고향과 모두의 마음을 잇다 등 네 가지 소주제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아울러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와 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의 공연도 마련돼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기념식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 1500여 명이 참석해 고향사

랑의 날 지정을 축하했다.

앞서 킨텍스에서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가 펼쳐졌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 누구나 연간 500만 원 내에서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방탄소년단(BTS), 축구선수 손흥민 등 유명인사의 참여가 잇따르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자체별로 기부금이 사용되는 기금사업 전시를 비롯해 스타강사 김미경, 가수 김태우, 시인 나태주 등이 출연하는 17개 프로그램을 통해 고향사랑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더불어 9월 2일 일산 킨텍스 평화누리길 일원(약 4km 코스)에서는 ‘너랑 걸을 고향’이라는 주제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걷기축제가 개최됐다. 이어 4일에는 행안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한 ‘제1차 지역사회혁신과 지역경제활성화’ 학술대회가 열려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 조윤 기자

‘K-보안’을 믿어라!

2027년까지 세계 5위 정보보호산업 강국으로… 30조 규모 시장 키운다

우리 정보보호산업이 경쟁력 강화를 토대로 튼튼한 사이버 안보를 실현하는 ‘K-보안’으로 거듭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5일 열린 제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점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보호산업은 국가안보와 연관이 깊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7월 13일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등에

서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악성코드와 랜섬웨어를 활용한 사이버 전면전을 펼침에 따라 사이버 공격이 본격적으로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가안보가 걸린 분야인 만큼 시장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최근 디지털화와 사이버 위협 증가로 인해 보안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보안규제 강화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시

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정보보호시장 규모는 2023년 3019억 달러(약 393조 9000억 원)로 2026년까지 연평균 8.5%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로트러스트·통합 보안 등 보안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사이버 보안 시장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하다.

2027년까지 세계시장 5위권 진입 목표

이번 전략에는 ‘글로벌 정보보호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 시장 규모 30조 원을 달성하고 세계 시장 5위권에 진입하기 위해 1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안유니콘 육성 등을 목표로 4대 전략,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4대 전략은 ▲보안 패러다임 전환 주도권 확보 및 신시장 창출 ▲협업 기반 조성을 통한 신시장 진출 강화 ▲글로벌 공약을 위한 단단한 산업 생태계 확충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 경쟁력 확보다.

먼저 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새 보안체계를 적용하고 스마트 공장,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의 보안 내재화를 통해 새로운 보안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융합보안 및 물

2022년 12월 22일 경기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합동분석실에서 민·관 사이버 전문가들이 분석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 국가정보원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 1 보안 패러다임 전환 주도권 확보 및 신시장 창출
- 2 협업 기반 조성을 통한 신시장 진출 강화
- 3 글로벌 공략을 위한 단단한 산업 생태계 확충
- 4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 경쟁력 확보

세계 5위
진입

시장 규모
30조 원
달성

보안
유니콘
육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보안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보안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기존 경계보안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제로트러스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한다. 제로트러스트란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접속을 요구할 때 네트워크가 이미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검증을 요구하는 보안개념을 뜻한다. 통신·금융·의료 등 기반 분야에 적용·확산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통합보안 모델도 구현한다. 혁신 통합솔루션·서비스 개발을 위해 민간 주도형 전략적 협업 추진연대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만든다. 이를 통해 민간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판로·투자·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또한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중동·동남아 지역의 협력 분위기를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중동 거점을 오만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재편했으며 2023년 12월에는 베트남 거점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동·동남아·아프리카·공공조달 사업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 협력형 ‘시큐리티 팀 코리아’를 구성해 공공부문 주도로 대형 해외사업의 수주 기회를 높일 방침이다.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로 기업 지원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가 탄생한다.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는 경기 성남 판교, 부산·울산·경남, 서울 송파 등에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보안 스타트업 육성 중심으로 판교를 지정해 이곳에 테스트베드, 입주공간, 사이버훈련장 등 산업이 지속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한 판교 모델을 부산·울산·경남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별 특화 전략 산업과 연계한 풀뿌리 보안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송파에는 ‘글로벌 시큐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정보보호산업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1300억 원 규모의 ‘사이버보안 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안정적 기술 개발과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펀드 결성액의 50% 이상을 제로트러스트 및 인공지능(AI) 등 유망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 및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에 쓰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미래 산업 성장에 필수인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선도국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 패권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 연구개발(R&D) 추진 방안을 세웠다. 이 방안은 미래도전, 기술·산업선도, 안보투자 등으로 구분해 영역별로 선택과 집중으로 성과를 극대화한다.

미래도전 R&D는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이 낮으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분야로 AI, 클라우드 보안, 제로트러스트 등이 포함된다. 기술·산업선도 R&D는 양자내성암호,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등 수준이 높은 국내 기술 중 글로벌 기술 주도권 및 수출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로 설정했다. 안보투자 R&D는 해외시장 규모가 작고 국내 기술 수준도 낮지만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과 연관된 핵심기술로 공격 억지, 선제 면역, 회복 탄력 등이다.

또한 미국·독일·핀란드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 강점을 지닌 선도국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보안기술의 경쟁력을 높인다. 동남아·중동 등 주요 신시장에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신흥국 지원 연구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K**

장기현 기자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상공인·중소기업 43조 신규자금 공급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추석연휴 기간이 6일로 길어졌다.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하고 추석 당일인 9월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연휴 기간 스마트폰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는 한편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8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비롯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방점을 뒀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숙박쿠폰 60만 장 배포

정부는 추석연휴와 개천절(10월 3일) 사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고향 방문을 독려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추석연휴를 계기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면제한다.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주차장을 개방한다.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요금을 할인해준다. 또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관광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숙박 할인쿠폰 60만 장을 푼다.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늘어난 규모다. 할인권은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5만 원 이상의 숙박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상당의 쿠폰으로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11월 여행 비수기를 겨냥해 숙박쿠폰을 배포할 계획이었지만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생겨난 황금연휴 기간을 국내 여행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30만 장을 조기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대상은 10월 중 최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사과·배추·명태 등 20대 성수품 평시보다 1.6배 더 공급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은 2022년 추석 대비 5%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과·소고기·돼지고기·배추·무·명태·고등어 등 20대 성수품은 평시보다 1.6배 많은 16만 톤을 공급한다. 2022년 추석(15만 톤)보다 1만 톤 많은 수준이다. 특히 사과와 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주요 성수품과 가격불안 품목을 대상으로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 원의 정부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 지원(20~30%)에 업계 자체 할인을 더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40~6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기재부의 설명이다.



2022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는 8월 31일부터 추석 당일인 9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마켓컬리·오아시스 등 온라인몰에서 할인 품목을 구매할 경우 20% 할인(업체별 1인당 최대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한시적으로 1인당 구매한도를 30만 원씩 늘렸다. 9월 한 달간 지류형 상품권은 10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은 15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한도를 확대해 판매한다. 특히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성수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준다. 구매금액의 30%(하루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식이다. 연휴 기간에는 전통시장 인근 갯길에 주차를 허용한다. 추석연휴 기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무이자 할부와 제휴 할인, 캐시백 등의 혜택을 준다.

이번 추석부터는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5만 원 이하 선물 범위에 포함된다.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명절 선물 가격 상한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이 8월 30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관광객 유치 본격 시동 지역 행사 통해 내수 진작

정부는 추석 황금연휴 기간에 방한한 관광객 유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8월 10일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된 것을 계기로 국내 관광 활성화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성수품 물가 안정	
670억 원 투입, 성수품 할인 판매 지원	20대 주요 성수품 물가 전년 대비 5% 인하 - 사과, 배 등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 - 정부 지원 할인(20~30%) 포함해 최대 40~60% 할인
온누리상품권 혜택 확대	-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구매 금액 (30%, 하루 2만 원 한도) 환급 -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 30만 원 확대 (지류형 상품권 100만→130만 원, 카드·모바일 상품권 150만→180만 원) 10월~12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내수 활성화	
국내 관광 활성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9월 28일~10월 1일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귀성·가족 동반석 요금 할인 - 추석연휴 포함 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 지원 9월 29일 프로야구 입장권 할인
방한 관광객 유치	- 중국 단체 관광객 본격 유치, 중국 소비자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가맹점 25만 개로 확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개최 - 사후면세점 환급 최소 금액 하향(3만→1만 5000원), 입국절차 간소화
소비 분위기 조성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연말까지 매달 할인 이벤트 개최
청탁금지법 제한 완화	- 추석 기간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가액 한도 확대(20만→30만 원) 5만 원 이하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포함

민생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규모 대출 및 보증 공급
주거안정 지원·주요 생계비 경감	-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위한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 1000억 원 확대 -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 2개월 연장, 10월까지 지급 - 연말까지 공공주택 6만 8000호 입주자 모집 및 10만 7000호 신규 공급 -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 기간 조정(6년→10년) - 추석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와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 모바일페이를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간편결제 가맹점을 25만 개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국 유통플랫폼인 타오바오·티몰 등과 연계한다. 또 면세점이 참여하는 쇼핑 축제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를 개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건당 3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낮춘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공편 증편과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했다. 먼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황금녘 동행축제’가 펼쳐진다. 온라인몰과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서 2만 4000여 개의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적인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해 내수 진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을 정기세일(9월 말~10월 초), ‘코리아 세일페스타(11월 11~30일)’, 12월 ‘눈꽃 동행축제(12월 중)’가 잇달아 개최된다. 특히 추석연휴(9월 28~30일)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최대 6개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와 제휴할인·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2자녀)로 문화시설 할인 대상도 확대된다. 전시 관람 때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먼저 관람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이 도입됐다.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할인 등도 함께 추진된다.

공공주택 6만 8000호 공급 ‘민생안정’에 총력

추석 전후로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3조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22년 추석 자금 공급 목표보다 17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세부적으로 대출 자금 38조 3300억 원, 보증 4조 4000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 중구 서울역에 추석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 뉴스시스

억 원 등이다. 대출은 한국은행(2085억 원), 국책은행(5조 8000억 원), 시중은행(31조 3250억 원) 등이 맡는다.

3조 6000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은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택시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경유, 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은 2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유류세 인하를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주거안정은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축인 만큼 이번 추석 대책에는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공공주택은 연말까지 6만 8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올해 안에 10만 70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임

대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주거급여 수급 청년은 목돈 없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하한선을 ‘월세 2년분’에서 ‘1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2024년까지 중위소득 170% 이하 미혼 청년가구에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는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6000억 원 늘린다. 2022년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금 2조 5000억 원(총 187만명 대상)은 9월까지 환급해주고 수출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추석연휴 기간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초고속인터넷은 고액의 해지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위약금 최고액과 약정 후반부 해지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은 3년 약정을 기준으로 24개월 이후 줄어드는 형태인데 이것을 18개월 이후부터 감소하도록 개선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정책은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다. 물가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 조윤 기자



8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K-팝 슈퍼라이브'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한 '콘서트 리멤버 키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으로 본 'K-팝 슈퍼라이브'

버스 이동



1100여대

리멤버 키트



4만 3000여개

참가국·참가자

150여개국·4만 2000여명

'K-팝 슈퍼라이브' 시청률

1부 17.2%

2부 20.7%

거대한 반전 만든 5일의 여정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기록을 만들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2023 세계잼버리)가 8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뉴진스, 아이브, 마마무, 있지, NCT드림 등 K-팝을 대표하는 인기 가수들이 열정적인 무대를 펼쳤고 150개국 4만여 명의 잼버리 대원은 폐창과 합성, 손하트로 화답했다. 피부색과 언어는 다르지만 K-팝으로 모두가 하나 된 순간이었다.

2023 세계잼버리의 대미를 장식한 'K-팝 슈퍼라이브'의 성공에는 사실 거대한 반전 드라마가 숨어 있다. 당초 8월 6일 새만금에서 열리기로 한 K-팝 콘서트의 공연 장소와 일정이 여러 번 바뀌면서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8월 7일부터 공연 당일까지 단 5일에 불과했다.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가 대거 출연하고 4만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공연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대형무대 설치와 좌석 배치, 대원들의 대규모 이동과 입·퇴장, 안전과 청결, 건강과 저녁식사 관리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게다가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와 강풍까지 예고돼 있었다.

'K-팝 슈퍼라이브'의 컨트롤타워를 맡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월드컵경기장 개최가 확정된 순간부터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총력을 기울였다. 시간이 없는 만큼 더 치밀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 'K-팝 슈퍼라이브'의 화려한 무대 뒤에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이 숨어 있다. 그들의 헌신은 새로운 기록들을 만들어냈다. 반전의 감동 드라마를 만들어낸 숨은 주역들을 만나보자.

타임라인으로 보는 긴박했던 5일

8월 7일

»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새만금 조기 철수 결정
»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공연 장소 변경



8월 8일

»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공연 장소 확정
» 스카우트 대원들 전국 8개 시·도로 이동



8월 9~10일

» 무대설치·출연진 섭외·차량동선·안전·위생 등 공연 준비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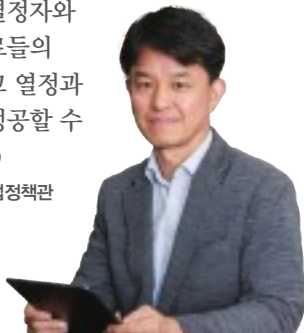
8월 11일

» 4만여 명의 대원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집결
» 잼버리 폐영식 'K-팝 슈퍼라이브' 성료



“부족한 것은 시간 자원이었다. 주요 의사결정자와 문체부 동료들의 신뢰 그리고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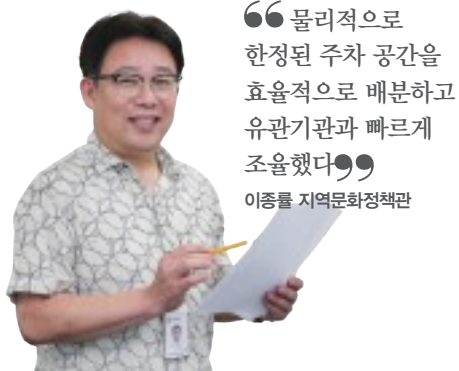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많은 기관이 맞물려 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한 게 기적 같아”

신은향 정책기획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며 고생하는 직원들이 안쓰럽고 고마워 가슴이 뭉클했다”

최보근 체육국장



“물리적으로 한정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유관기관과 빠르게 조율했다”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

첫 번째 반전

태풍 피해 전주에서 상암으로

용호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K-팝 슈퍼라이브’ TF팀을 총괄지휘했다. 8월 7일부터 11일까지 공연 준비를 위한 시간, 장소, 프로그램, 그밖의 인력과 예산 등 모든 자원을 확보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끌었다. 무대와 객석, 좌석 배치, 관객 이동과 입·출입 안내, 소방, 안전, 의료 등 공연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조정해야 했다. 용 정책관은 “분야별 단독방에서 하루에도 수백 건씩 예기치 못한 상황이 보고됐고 온갖 요구사항이 쏟아졌다”며 “각 영역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가면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고 말했다. 시간은 부족했지만 용 정책관에게 ‘신뢰’라는 큰 자원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박보균 장관부터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현장을 믿고 현장 판단을 존중해줬다. 또 공연을 위해 연이은 밤샘 업무도 마다 않고 주어진 책임을 해낸 수많은 문체부 동료의 신뢰 역시 큰 힘이였다”면서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아니었다면 이번 콘서트는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총괄조정 업무를 맡은 신은향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4만 2000명의 대원이 버스에서 내려서 공연을 보고 다시 버스에 타기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마포경찰서·소방서·구청, 서울시 등 여러 기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였다”고 말했다. 신

기획관은 공연이 끝난 뒤 직접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퇴장 순서를 호명해가며 상황을 정리했다. 덕분에 4만 2000명이 경기장을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신 기획관은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많은 기관이 맞물려 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한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반전

5일 동안 불기능을 기능으로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컨트롤 타워의 문제 해결 능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김용한 운영팀장은 “세계 각국의 잼버리 대원들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현장 정비, 시설 운영, 인파 관리, 교통 대책, 안전 보안 등 고려할 사안들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월드컵경기장 현장 관리자로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지원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게 문체부였다. 김 팀장은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행안부, 경찰, 소방,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문체부의 문제해결 능력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쓰레기 처리문제까지 관할구청과 협의해 8월 19일 예정된 K-리그 경기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게 해줬다”고 말했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경기장 안전과 안내를 총괄했다. 미끄럼 방지와 동선, 안전펜스 관리 등 전반적인 경기장 안전 점검과 입장객 좌석 안내,

현장 불편 제기 사항 등에 대응했다. 준비 기간은 짧고 당일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몰린 만큼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입장한 데다 몰래 좌석을 이동한 대원들, 중복된 좌석 등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체육국 직원들은 동분서주했다. 최 국장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며 고생하는 직원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개월을 준비해도 쉽지 않은 행사를 짧은 기간에 준비하고 사고 없이 끝낸 것은 여러 면에서 기록적”이라고 말했다.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한 정태경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의 책임도 컸다. 정 과장은 “마포경찰서와 서울경찰청 대테러반 등 경찰 관계자, 안전요원 등과 함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일의 준비 기간 동안 끊임없이 회의하고 점검했다”고 말했다. 경기장 출입구부터 좌석까지의 동선부터 구급차, 소방 시설 등 안전시설 배치까지 여러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늦은 밤까지 논의해야 했다. 행사 당일엔 문체부 직원들을 경기장 곳곳에 배치했다. 정 과장은 “안전 관리를 맡은 직원들과 전체 정보공유방을 운영해 행사장 전 구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덕분에 사라진 대원을 빠르게 찾아 자리에 돌려보내고 고소 공포증으로 힘들어하는 대원을 낮은 구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빠른 대처가 가능했고 큰 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행사 당일 정보공유방을 오간 메시지는 600건에 달한다. 관객석 안전 관

리 업무를 담당했던 문체부 체육인재양성과 김현아 주무관은 “더 좋은 자리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대원들이 자리를 이동하는 등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정보공유방에 보고했고 그때마다 빠른 결정을 내려줬다”며 “덕분에 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반전

공연 취소의 위기를 넘기다

사실 하마터면 ‘K-팝 슈퍼라이브’ 공연이 취소될 수도 있었다. 이재준 외교부 문화교류과장은 콘서트 전 날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영국스카우트연맹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해 사전 답사했던 순간을 언급했다. 이 과장은 “공연에 임박해 장소가 결정되다 보니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영국스카우트연맹 측 인사들이 우리 측의 준비 상황을 미리 보길 원했다”며 “우리 정부가 짧은 시간에 수만 명이 운집하는 콘서트를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행사 준비로 바쁜 데도 불구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협조해 사전답사를 지원했고 K-팝 슈퍼라이브 TF팀에서 행사 계획을 두 시간여 동안 브리핑했다. 이 과장은 “나중에 알고 보니 세계스카우트연맹 측은 우리 측 계획과 준비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콘서트를 보이콧(거절)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며 “문체부 담당 국장이 우리 측의 준비 상황을 잘 설명한 것이 콘서트의 성공을 결정 짓는 분기점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아마드 알렌다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걱정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현장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모든 게 가능했다”

박현경
대중문화산업과장

“안전 위해 수많은 지원인력이 바닥 물기를 찾아다니며 닦아냈던 긴박한 상황이 기억에 남는다”

이당권 운영지원과장



“제작부터 배포까지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스카우트 대원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김수현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



“대원들에게 잼버리 행사를 마무리하며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어 다행이고 보람 있었다”

신지원 한류지원협력과장



세계스카우트연맹 관계자들은 “TF팀 미팅에서 질문과 요청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대응과 준비를 해줬다”며 문체부에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행사 일정은 물론 새만금에서 전주, 전주에서 서울로 장소를 변경하면서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처해야 했던 사람이 있다. 개영식, 폐영식, K-팝 콘서트 등 주요 공식행사의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맡았던 KBS 장두희 PD다. 장 PD는 “8월 6일 예정된 콘서트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병 환자 발생 등으로 8월 5일 저녁에 취소되고 8월 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다시 태풍 ‘카눈’이 내륙 쪽으로 접근한다는 소식에 8월 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발빠른 결정이 이뤄졌다”며 “정부 조직과 공무원은 놀란판을 미룬다는 어쭙잖은 편견이 있었는데 문체부에서 놀랍게도 정확한 진단과 빠른 결정을 해줬다”고 말했다. ‘K-팝 슈퍼라이브’의 진행을 맡은 KBS 뮤직뱅크팀은 8월 8일부터 출연진을 섭외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무대 설치, 공연 준비에 나섰다. 장 PD는 “나와 함께한 PD들은 행사 당일 까지 제대로 먹은 게 한 끼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정신없었지만 공연이 끝나고 웃으며 경기장을 떠나는 대원들을 보니 고생한 만큼 보람이 느껴졌다”고 했다.

박현경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공연 이틀 전부터 4만 2000명의 출발 지역과 탑승 버스에 따라 구역별로 좌석을 배치하는 업무를 맡았다. 대원들이 객석에 앉아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하고 무사히 다시 차량에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참

석 대원 숫자와 출발 지역이 늦게 결정되면서 한정된 정보로 빠르게 좌석 배치를 하느라 애를 먹었다.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해야 했다. 박 과장은 “대원들이 입장하기 시작한 오후 2시부터 착석이 완료되고 콘서트가 시작된 저녁 7시까지 직원들이 현장 상황을 조율하며 뛰어다녔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박 과장은 “텅 비어 있던 객석이 빈틈없이 대원들로 꽉 채워지고 K-팝을 즐기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당일 아침까지도 걱정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현장에서 현신이 있었기에 모든 게 가능했다”고 말했다.

신지원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장은 행사 지원과 관람 안내 등을 담당했다. 공연 중에 수시로 변경되는 객석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했다. 신 과장은 “실시간 상황을 소통하면서 대원들의 퇴장 순서와 안내 사항을 전광판에 띄울 수 있었다. 행안부, 경찰, KBS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가능했다. 큰 혼란 없이 퇴장이 진행되고 문제없이 행사가 끝나 정말 다행이었다”며 “힘들었지만 대원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네 번째 반전 1100대의 버스를 통제하라

전국으로 흩어진 4만 명이 넘는 대원을 실은 버스 1100여 대가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집결하면서 주차 관리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날 행사장에는 대원들이 타고 오는 대형버스 외에도 경찰특공대·소방차·구급차와 뉴진스

등 KBS 방송 출연진 차량과 송출 차량이 몰렸다. 이 문제를 해결한 건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이다. 우선 지역에서 오는 잼버리 대원들의 대형버스를 경기장 내 어느 주차장에 배정해야지 가장 원활하게 출입을 할 수 있을지, 연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주차장 내 구역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관람이 허용되지 않은 사생팬들의 출입은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등에 대해 짧은 시간 동안 유관기관들과 빠르게 조율했다.

이 정책관은 “주차 관리 업무는 외국인 대원들과 인솔자, 그리고 버스 운전자가 당초에 정해진 하차 위치를 지켜야만 정시에 행사가 진행되고 또 행사 종료 후에도 서로 엉클어지지 않고 순서에 맞춰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하차 지점에 안내하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다행히 행정안전부, 경찰, 마포구보건소, 서울시설공단, 국정원 대테러반 등 많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전에 수립한 계획대로 주차장 확보, 주차구역 배정, 인솔인원과 연락, 비표 확보, 출입 유도 등이 원활하게 이뤄졌고 행사 3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도착한 잼버리 대원들이 순조롭게 경기장 내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전세버스별로 인솔자를 배정하는 일이 중요했다.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전경일 사무관은 8월 9일부터 수송지원팀에서 주차장 확보 및 전세버스별 인솔자 배정 업무 수행을 맡았다. 전 사무관은 “전세버스가 확보되지 않은 시점에 미리 주차장을 확보해 구역을 나눠야 했고 잼버리 대원 현황 통

“K-컬처 도약의 계기 5일 만에 놀라운 역량 발휘 공직사회 롤모델 만들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월 6일 전북 부안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K-팝 콘서트 일정 및
장소 변경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8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팝 슈퍼라이브'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만들어진 무대였다. 애초에 K-팝 행사는 8월 6일 새만금 잼버리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폭염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면서 8월 4일부터 “날짜·장소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때부터 드라마가 시작됐다.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8월 11일 폐영식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다.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이었다. 태풍을 피해 다시 장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행사의 컨트롤타워를 맡은 박 장관이 나섰다. 박 장관은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들을 설득한 끝에 드디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K-팝 슈퍼라이브’ 개최 장소로 확정했다

박 장관은 8월 8일 “새만금 잼버리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공연으로 멋지게 마무리하려면 계획이 태풍의 진로 변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돼 안타깝고 아쉽다. 하지만 새만금 잼버리는 상암의 K-팝 콘서트 드라마로 계속 힘있게 이어질 것이다. 11일 공연은 4만여 스카우트 대원이 K-컬처의 매력과 진수를 경험하고 하나가 되면서 잼버리 대회의 피날레를 감동적으로 장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약속처럼 8월 11일 개최된 K-팝 콘서트는 거대한 반전의 감동 드라마를 펼쳐며 잼버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4만 2000여 명의 잼버리 대원은 K-컬처의 매력에 푹 빠졌고 국민도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박수를 보냈다.

국내 언론들은 ‘잼버리 구원투수 K-팝 콘서트’, ‘위기의 잼버리 K-팝이

살렸다’는 제목으로 4만여 명의 잼버리 대원을 하나로 만든 ‘K-팝 슈퍼라이브’의 대활약을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8월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잼버리를 잘 마무리해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K-팝 콘서트가 잼버리를 살렸다는 외국 대사들 얘기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축박한 준비 기간에도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박 장관은 “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안전하게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 우리 부는 무사안일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역량을 발휘했다”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 관리를 위해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했고 선수범과 헌신을 통해 공직사회의 롤모델을 제시했다. 그 결과 이번 콘서트는 K-컬처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8월 2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체부가 주도한 ‘K-팝 슈퍼라이브’ 공연의 성공으로 대회 초기에 실망을 줬던 새만금 잼버리는 환호와 갈채로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박 장관은 “황보승희(무소속)·배현진(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질의 중에, 국민의힘 김승수·이용 의원은 오후 회의 시작에 앞서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의 K-팝 공연이 잼버리를 멋지게 장식해줬다. 문체부의 헌신과 열정 덕분이다’라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K-팝 슈퍼라이브’ 행사의 성공은 K-컬처의 진수와 매력을 분출시켰던 19개 아티스트 팀과 KBS 연출 관계자들의 역량과 열망, 마포경찰서·소방서·구청 등 지자체와 식약처 등 공직자, 그리고 문체부 구성원까지 모두가 합심·노력해서 자기 역할을 치밀하게 수행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8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세계스카우트잠행대회 K-팝 슈퍼라이브에 참석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계가 시간대별로 달라져 인솔자 배정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당장 이틀 안에 전세버스를 계약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담당자, 콘서트장 이동 통제를 위해 관람구역을 구획하는 문체부 담당자 등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도와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장대광 교통과장은 대원들이 탑승한 버스와 관계 차량 등 14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진입하는 월드컵로를 통제했다. 지자체와 협조해 주변 대형 공사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마련했다. 행사 당일 전국에서 오는 수송버스의 노선이 중복되면 극심한 정체를 빚을 수 있는 만큼 주차구역별 진입 노선도를 제작, 비표를 이용해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도

왔다. 장 과장은 “교통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새만금 출차 대비 행사 당일 주차 후 경기장 입장 3시간, 행사 종료 후 전원 승차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데 2시간 30분이라는 믿기 힘든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마포소방서 고금협 팀장은 “소방과 경찰은 이미 수만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치른 경험이 많지만 완벽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답사부터 모든 준비 과정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겼고 회의를 거듭하며 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 문체부,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손발을 맞추면서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고 했다.

마포구청도 힘을 보탰다. 구민안전과 김명진 안전총괄팀장은 “공연 당일 비

가 많이 와서 임시주차장에 물이 차올라 버스 주차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공원녹지과·물관리과와 협력해 주차장 풀을 베고 배수처리를 했다. 덕분에 버스 450여 대를 계획대로 주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과 강진경 문화사업팀장도 “한 대원이 휠체어를 요청했다는 연락이 와서 관내 휠체어 10여 대를 수소문해 행사장에 가져갔다”며 “작은 일이었지만 대원들이 편안하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반전

4만 3000개 키트를 준비하라

대원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해선 경찰의 협조가 필수였다. 마포경찰서 정형은 경비과장은 “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돼 안전한 행사와 이동을 도왔다. 공연이 끝난 뒤 대원들이 이동하면서 경찰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당권 문체부 운영지원과장은 행사장 내 위생 및 청소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 과장은 “초기에 화장실 등과 관련된 위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충분한 화장실을 확보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동식 화장실 30조를 추가 설치해서 큰 불만사항 없이 행사를 마무리했다.

공연 당일 태풍으로 인해 비가 오면서 안전을 위해 행사장 계단과 좌석 물기 제거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과장은 “수많은 지원인력이 바닥의 물기를 찾아다니며 닦아냈던 긴박한 상

위기를 기회로 우려를 찬사로 “콘서트 장소 변경은 ‘신의 한수’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K-팝 슈퍼라이브”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려를 찬사로 바꿨잖아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2023 세계잼버리의 마지막을 장식한 ‘K-팝 슈퍼라이브’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 회장은 행정의 달인이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정 위원 등 굵직한 행사를 치렀다. 그만큼 이번 행사를 바라보는 마음도 남달랐을 것이다.

이 회장은 “새만금에서 전주, 전주에서 서울로 며칠 만에 장소를 옮겨 대규모 공연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결정이 ‘신의 한수’가 됐다. K-팝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우리 정부의 위기수습 대응 능력을 보여줬고 결과적으로 잼버리 정신이 더욱 빛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한히 책임지는 자세야말로 공직자의 진정한 자세”라며 “이번에 공직자의 롤모델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공연의 성공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확인됐다. ‘K-팝 슈퍼라이브’를 관람한 4만여 명의 대원은 공연 내내 야광봉을 흔들면서 흥에 겨운 몸짓으로 K-팝에 젖었고 아는 노래가 나오면 떼창으로 화답했다.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에도 한국문화나 한국인의 친절함 등에 감동했다는 반응들이 올라왔다.

“좋아하는 K-팝 가수의 공연을 직접 보다니 꿈만 같아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갖고 떠나게 돼 정말 행복합니다.”

공연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한 ‘콘서트 리멤버 키트’를 받은 대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8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일찍 도착한 루마니아 대원들은 입장과 함께 전달받은 ‘콘서트 리멤버 키트’에 들어 있는 기념품을 확인하고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다. 특히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 캐릭터 인형은 큰 인기를 끌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포토카드 또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K-컬처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됐다. 칠레의 한 대원은 방탄소년단 포토카드를 보고서 “생각하지 못한 깜짝 선물”이라며 뭉뚱이 기뻐했다. 다수의 대원이 누리소통망(SNS)에 포토카드 사진을 올리며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참석을 인증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기념품을 받으면서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감사를 표했다. 일부 스카우트 대원은 기념품을 배포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사탕을 건네기도 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문화강국이 됐다. 잼버리가 끝나고 일주일 후 삼성동 코엑스 근처에 갔는데 그때까지 스카우트 옷을 입은 참가자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들이 앞으로 한국의 홍보대사가 될 것”이라면서 “K-팝, K-컬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황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김수현 문제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 함께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줄 기념품 ‘콘서트 리멤버 키트’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콘서트 리멤버 키트’ 4만 3000개를 제작하고 배포하기까지 꼬박 4일 동안 분초를 다투며 준비했다. 김 단장은 “4만 3000개라는 숫자

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스카우트 대원들이 기념품을 확인하고 소리를 지르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기뻐다”고 말했다.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입장하기 전 1시간 동안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좌석에 미리 기념품을 놓아두려던 계획을 변경해야 했다. 스카우트 대원 입장까지 남은 1

시간 동안 그라운드 좌석 입장 동선을 뛰어다니며 적당한 배포장소를 확보하고 직접 입장하는 대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김 단장은 “함께한 직원들이 다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K]

강정미 기자

콩 실크·옥수수 내의 : 컨셔스 패션이 온다

집중호우, 극한 폭염, 잦은 산불... 최근 기후변화가 더욱 선명해지면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소비의 가치 중심이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 다음 세대에게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패션 트렌드마저 바꿔놓고 있다. 바로 '컨셔스 패션'이다. 컨셔스 패션은 컨셔스(Conscious)와 패션(Fashion)의 합성어로, 생태계를 배려한 의식 있는 패션을 뜻한다. 의류 소재 선정부터 제조 공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친환경으로 생산한 의류 또는 의류를 소비하는 행동에 환경을 의식하자는 것이다.

버려지는 의류, 폐기 아닌 순환으로!

패션은 엄연히 환경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다. 2000년 이후 콩, 대나무, 면, 마 등을 원료로 하는 천연섬유 생산량은 매년 3.5%씩 늘고 있지만 합성섬유는 사용 후 자연 분해되지 않아 지구를 위협한다. 특히 한 번 입고 빨리 버리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 유행하면서 합성섬유의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철이면 생명이 끝나는 옷들은 수거함에 버려진 뒤 소각장으로 직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의류수거함 등에 분류 배출된 옷은 약 12만 톤에 달한다. 그 밖에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폐섬유류는 39만 6000톤, 사업장 등에서 버려진 폐섬유류는 6만 5000톤이나 된다. 여기에는 패션기업의 별도 소각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개할 의무도 없거니와 매출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라 밝히길 꺼리기 때문이다.

영국의 순환경제 연구기관 엘렌맥아더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초마다 쓰레기 트럭 한 대 분량인 2.6톤의 옷이 소각되거나 매립된다고 밝혔다. 옷을 매립·소각 처리하면 대부분 합성섬유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또 직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매년 12억 톤에 이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이렇게 생산과 소각 과정을 통해 의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한다.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나 분해가 잘되는 천연소재로 의류를 만들어 폐기물을 줄이려는 제조업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컨셔스 패션이 등장했다. '예쁜 것'에만 치중하며 유행을 주도했던 유명 패션업체들이 '환경오염 주범'이란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 옷 재료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패션업계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버려지는 의류를 재활용하는 '리사이클'에서부터 새로운 패션상품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방식까지 컨셔스 패션을 다각화하고 있다. 또 100% 유기농 면으로 만든 티셔츠,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든 골프바지, 뽕기폴로 만든 앞치마, 콩 섬유로 만든 실크에 옥수수로 만든 속옷 내의까지... 일명 피부자극이 없는 천연소재만 사용한 의류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면은 셀룰로오스의 수산기(-OH)가 물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 피부의 땀이나 오염물을 빨리 흡수한다. 그래서 입으면 쾌적하고 정전기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천연섬유인 유기농 면은 땅에 묻었을 때 잘 썩고 분해·재배 과정에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신 산소를 내뿜어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일조한다.

유기농이 아닌 일반 면은 어떻게? 목화 재배 단계부터 살충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가 크다. 또 부드럽고 깨끗한 면제품을 생산하려면 가공·표백·염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화학약품으로 처리해야 해서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된다.

천연섬유 사용으로 지구온난화 막는 데 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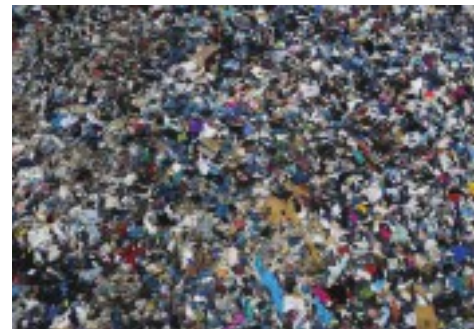
국내에서 컨서스 패션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은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브랜드 ‘자주(JAJU)’다. JAJU는 아시아 최초로 ‘코튼 메이드 인 아프리카(CmiA)’의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며 친환경 패션 강화에 나섰다. CmiA는 지속가능한 목화 생산을 위해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이다.

CmiA는 모든 생산 과정의 추적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환경을 관리한다. 기계 대신 사람이 직접 손으로 유기농 목화를 채취해 불필요한 자연 훼손을 방지한다. 아프리카 자연 강수를 활용해 일반 목화가 1kg당 평균 1563ℓ 물을 사용하는 데 반해 2ℓ 정도 물만으로도 유기농 목화 재배가 가능하다. CmiA에는 전 세계 유명 브랜드와 기업, 다양한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JAJU는 2025년까지 의류의 70% 이상을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컨서스 패션은 섬유질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농축산물 단백질에서도 섬유를 재생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닭 털에 들어 있는 단백질인 케라틴과 밀 단백질인 글루텐에 ‘나노입자 교차결합’ 같은 첨단기술을 적용하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천연섬유가 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드마켓은 2019년 63억 5000만 달러(한화 약 7조 6100억 원)이던 전 세계 컨서스 패션 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8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0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패션업계는 단순한 패션이 아닌 사회적 책임감이 결부된 지구를 살리는 패션, 얼마나 더 팔 것인가가 아닌 어떤 원료로 어떻게 생산할지를 연구해 실용적 컨서스 패션을 유행시켜나갈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2020년 1월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폐기 방지와 순환경제 법안’을 통과시켜 의류·신발·화장품 등 팔리지 않는 재고품의 폐기를 금지하고 있다. 생산자·수입자·유통업자가 건강·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재고품을 폐기하지 못하고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우리 나라도 기부와 순환을 위한 ‘재고 및 반품 폐기 행위 금지 법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지구 환경을 살리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헌 옷 무덤으로 변한 칠레 사막. 해마다 4만 톤의 옷이 버려지고 있다. 사진 BBC News 캡처



김형자

〈Newton〉 편집장
출신으로 과학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과학
칼럼니스트.
〈구멍으로 발견한 과학〉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인앤아웃코퍼레이션 류선종 대표

브랜드 발굴하고 키우고 “소상공인을 K-브랜드의 주인공으로”

2022년 어느 봄날 뉴스를 보던 류선종 인앤아웃코퍼레이션 대표는 허리를 곧추세웠다.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일어났다. 아파트가 있는 나라라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파트를 다시 지을 수는 없지만 소음이 들리지 않게 할 방법은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무음무음’을 줄인 ‘몸뭉실내화’를 만들어냈다.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충격·진동 흡수 소재 ‘엘라스탄’과 ‘고탄성EVA’를 쿠션재로 넣은 몸뭉실내화는 출시 후 1년 만에 5만 켤레 이상 팔렸다.

류선종 대표에게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아이템이다. 먹고 입고 자고 깨는 순간 불편은 아이템이 되고 고민은 아이디어가 된다. 그는 직접 브랜드를 개발하는 동시에 브랜드를 발굴하고 함께 성장을 도모한다. 인앤아웃코퍼레이션의 정체성은 ‘브랜드스케일업컴퍼니’다. 아이디어를 브랜드로, 장사를 사업으로 만든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8월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19.9%로 미국(6.6%), 일본(9.8%), 독일(8.4%)에 비해 크게 높다. ‘퇴사하고 치킨집이나 카페를 차려볼까’ 하는 이들은 많지만 성공하는 이들은 적고 제대로 된 창업교육을 받은 이들은 더 적다. 창업 경험이 없는 초기 자영업자의 90%가 창업 후 1년 이내 폐업하고 나머지의 70%도 5년 내

폐업하는 게 현실이다.

창업을 장려하고 돕는 인앤아웃코퍼레이션은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으로 거점을 옮겼다. 이들이 쓰는 건물의 지하는 커뮤니티 공간, 1층은 팀원들이 직접 만든 브랜드 팝업스토어, 2층은 브랜드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창업가의 공간, 3층과 4층은 실무와 회의의 공간이다. 인앤아웃코퍼레이션의 정체성을 건물에 녹인 셈인데 류 대표는 이곳이 K-브랜드를 키우는 인큐베이터이자 세계로 내보내는 브랜드 액셀러레이터가 되길 바란다. 8년 전 그가 서울 용산의 지하상가 3평 공간에 창업했을 때부터 꾸던 꿈이다.

사옥을 성수동으로 옮겼다.

브랜드를 발굴하고 투자하는 회사로서 호랑이굴에 들어가자는 각오였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엔 이유가 있다. 이곳이 우리의 오피스이면서 브랜드다. 이곳을 아지트로 일본, 미국, 동남아에도 K-브랜드를 알릴 거점을 만들 계획이다. 이제 건물은 부동산이 아니라 콘텐츠다. 어떤 콘텐츠가 담기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찾아온다.

인앤아웃코퍼레이션이 발굴하는 브랜드도 결국 콘텐츠 아닌가?

늘 발품을 판다. 서울 한남동, 연남동, 성수동, 서울숲 구석구석에 독보적인 가게들이 장사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장

인앤아웃퍼레이션 류선종
대표는 "장사가 사업이 되면
경제에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1 포커스미디어와 함께 공동 기획한 중간소음방지 '뭉뭉실내화'
2 고양이 화장실 전용으로 사용하는 모래상 3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패턴 3가지를 적용한 '피라미드 고양이 정수기' 사진 인앤아웃코퍼레이션

사가 사업이 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순 소상공인을 전문가들이 도우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다른 재능과 열정이 있다. 최근에 마포에서 구운 과자를 파는 과자방에 갔는데 너무 맛있더라. 부부가 작게 하는 가게인데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다. 우리가 인앤아웃 아닌가. 들어올 때는 작았더라도 나갈 때는 멋진 브랜드가 되길 바란다.

열정과 재능이 있어도 창업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자영업자 폐업률도 높고.

소상공인이 잘돼야 한다. 문제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다. 누구나 창업가가 될 수 있지만 자기만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이들이 잘되면 세금을 내고 일자리도 만든다. 장사가 기업이 되면 사회와 국가에 선순환이 일어난다. 미국은 어떤 브랜드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인수합

“장사가 사업이 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순 소상공인을 전문가들이 도우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다른 재능과 열정이 있다.”

병을 한다. 기업과 브랜드를 사고파는 일이 자연스럽다. 그렇게 한 번 창업을 한 기업가는 또 재창업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쉽지 않다. 성공을 경험하면 다음 도전은 쉽다. 그 성공의 경험이 중요하다.

뭉뭉실내화는 인앤아웃코퍼레이션의 대표적인 성공작이다.

뉴스를 본 게 시작이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나다니 막을 방법이 없을지 고민했다. 처음엔 매트를 생각했는데 집 전체를 시공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다가 실내화를 생각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와 공동 기획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뭉뭉실내화'를 광고하면서 초기 물량이 완판되고 5만 켤레가 팔렸다.

'브랜드스케일업'은 어떤 의미인가?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도 처음엔 작은 상회로 시작했다. 소상공인을 어엿한 경제주체로 봐야 한다. 최근에 우리 회사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공모전'을 열었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이곳 성수에 장소와 보증금, 인테리어와 창업기획 프로그램들을 모두 제공하겠다고 했더니 수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그중에서 경기 군포에서 과자점을 운영하는 지원자가 선정됐다. 계절마다 다른 '디저트 오마카세'를 선보이겠다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그를 보면서도 생각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하면 가능성과 잠재력이 폭발한다. 한 달 만에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하는 셈인데 벌써 예약주문이 들어온다.

창업자들을 선정할 때 특별한 기준이 있나?

보면 진실인지 꾸미는지 드러나는 태도가 있다. 나는 1년에 500장 명함을 3~4통 쓴다. 경험이 쌓이다보니 사람을 만나면 태도가 보인다. 어떤 브랜드든 핵심역량은 창업자 자신이어야 한다. 카페를 한다면 사장이 바리스타여야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출근이 즐겁다. 직장생활할 때는 느끼지 못하던 감정이다.

그때는 연봉이 오르는 게 관심이었다면 지금은 사회와 나라와 미래를 고민한다. 우리와 함께한 브랜드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나도 성장한다.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잘된다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인앤아웃코퍼레이션도 계속 변한다. 처음 회사 이름은 엔피프틴(N15)이었다. 용산 나진상가 15동 지하 1층에서 시작했고.

초기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었다. 3평 공간에 책상 하나, 의자 4개로 시작했다. 만약 자본이 넉넉했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싶다. 절박해서 간절했다. 간절함에서 창의성이 나온다. 용산을 바꾸겠다는 각오였고 거기에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과 함께 일했다. 평생직장이 사라진 시대니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했다.

당시 N15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한 창업 액셀레이터였고 협업한 스타트업만 1200여 개에 달했다.

창업가에게 시제품 완성이나 유통의 어려움 등 문제를 해결 해주면 제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는 그 과정의 전문가다. 금융이나 경영이나 재무회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시행착오를 줄인다. 나는 실력있는 소상공인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한다. 요리만 해도 된다, 옷만 만들어도 된다.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

왜 이런 도움을 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

그런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신뢰의 기반은 공유와 투명성이다. 투명할수록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 비용이 줄어든다. 사회 전체가 그렇다.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은 언어가 모두 다른데.

나는 둘 사이를 이어주는 거간꾼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 번역에 가깝다. 양측의 언어를 소통 가능하게 바꿔주는 거다. 정부의 언어와 기업의 언어가 다르다. 자기의 언어만 고집하면 일이 어긋난다. 그런 오해가 갑질처럼 비칠 때도 있고, 우리 같은 중간 플랫폼을 거치면 일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더 빨라진다.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를 쓰니까.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민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했다.

한국의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벤처를 전 세계로 보내자는 데 합의와 공감의 이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업이 세계화되고 선진화되려면 해외자본의 투자도 유치해야 한다. 사절단에

참여하면서 뿌듯했던 건 세계 속에 한인 기업들이 굉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해서다. 우리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고 싶다.

2022년에 모교인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카이스트 경영학석사(MBA) 13학번으로 들어간 게 내 인생을 바꿨다. 그 과정에서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을 만났고 창업가의 길을 걷게 됐다. 그들은 창업가들을 히든 챔피언, 숨어 있는 주역이라 생각한다. 중간이 튼튼해지고 허리가 두터워져야 사회가 탄탄해진다. 선수가 많아야 경기의 질도 좋아진다.

일단 선수를 키우는 게 중요하겠다.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언젠가는 창업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꿈이 있다. 초등학교부터 창업교육을 하고 대학교에도 창업 관련 학점제가 있어야 한다. 졸업하면 취업만 있는 게 아니라 창업이라는 길도 있다.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대부분 취업을 생각한다.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 관대하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 어렵게 창업을 결심하더라도 성공이 쉽지 않다. 교육의 경험이 없어서다. 군인들에게도 창업교육을 해주고 싶다. 그때가 진로와 미래에 대해 가장 고민이 많을 때 아닌가. 나도 그랬다.

지금은 뭘 고민하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거시적인 위기다. 제3국에 있는 이들도 한국에서 창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 우리 브랜드도 다양한 나라에 들어가고, 다양한 나라의 인재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러려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외국인도 창업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열린 제도가 필요하다. 미국이 그렇다. 세계의 머리 좋은 인재들이 창업하려고 모인다.

고민의 스케일이 다르다.

우리나라 콘텐츠가 세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선전하는 건 곧 영화관의 시대가 끝나리라는 걸 예견한 이들이 먼저 준비해서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 미리 고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창업을 하니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미국의 기업가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이유를 기업을 해보니 알겠다.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돼야 기업도 있다. 기업가는 아주 이타적이면서 또 이기적이어야 한다. 결국 극단의 이기심은 이타심과 만난다. 

유슬기 기자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운행 중인 배달로봇 '뉴비'가 횡단보도 앞 경사로에 멈춰 서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커피 한 잔도 'OK' 11월부터 배달로봇이 인도로 달린다

지난 6월부터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캠퍼스에서는 아주 특별한 직원을 만날 수 있다. 캠퍼스를 누비고 다니는 배달로봇 '뉴비'다.

“우와 저게 뭐야? 귀엽다!” “배달로봇이네! 우리도 시켜볼까?”

8월 말 건국대 캠퍼스를 찾은 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뉴비'를 향했다. 신기한 듯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모습을 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뉴비' 옆에 있는 현장요원에게 “어떻게 배달을 시킬 수 있나”, “어디까지 배달을 해주는 거냐”며 구체적인 이용방법을 묻는 이도 있었다. 인파에 치이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뉴비'가 지나갈 때마다 길을 비켜주는 모습이었다. 건널목에서 차가 올 땐 '뉴비'가 스스로 멈춰 섰다.

‘뉴비’는 자율주행로봇 개발 기업 뉴빌리티가 제작한 ‘배달로봇’이다. 10월 3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수요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건국대에서 도심 로봇 배달 서비스 3차 실증 테스트를 진행한다.

뉴빌리티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세븐일레븐 편의점과 손잡고 서울 서초구 방배1동 전역과 방배3·4동 일부 지역에서 실증 서비스를 해왔다. 2023년 들어 건국대 캠퍼스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 인근 식음료 매장 14곳에서 음식을 시킬 수 있다. 커피, 샌드위치, 샐러드 등 음료와 간편식은 물론 떡볶이, 마라탕, 돈가스 같은 식서류도 주문할 수 있다. 뉴빌리티 측은 “최근 편의점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근거리 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로봇배달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철가방’ 이미지 벗고 친근함으로 승부

11월이면 ‘뉴비’ 같은 배달로봇이 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과 로봇의 보도 이동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덕이다. 이전까지 자율주행로봇은 자동차에 해당돼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관련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실용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그간 제조업에 국한돼 활용됐던 로봇이 서비스업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건국대 캠퍼스 내에는 ‘뉴비’ 두 대가 운행 중이다. 공학관 앞에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주문이 오면 가게에 들어 음식을 픽업한 뒤 주문자에게 가져다주는 방식이다. ‘뉴비’의 외관은 바퀴 달린 아이스박스 모양이다. 폭 60cm, 길이 70cm의 적재함은 1리터 생수 6개들이 한 묶음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다. 자장면은 네 그릇이 들어간다. ‘뉴비’는 고가의 라이더(LiDAR) 센서가 아닌 카메라를 이용한 자율주행 기술로 가격경쟁력을 갖췄다. 전방의 카메라 두 대가 눈 역할을 한다. 동물의 눈처럼 귀여운 모습이다. 뉴빌리티 이성은 대외협력팀장은 “배달로봇은 도심에서 시민들과 계속 마주쳐야 하는 만큼 친근함이 중요하다. 배달 하면 떠오르는 ‘철가방’ 이미지를 벗어나 거부감이 없도록 디자인했다”고



뉴빌리티 이성은 대외협력팀장은 “‘뉴비’는 ‘철가방’ 이미지를 벗어나 친근하게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설명했다. 이밖에 ‘뉴비’에는 피쳐맵(feature map)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위치 인식 기능, 정적·동적 장애물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능력, 최적경로가 가로막혔을 때 국지경로를 탐색하는 경로 설계 기능, 최대 20도의 경사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등이 집약됐다.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날 직접 ‘뉴비’를 이용해봤다.

울퉁불퉁 인도도 가뿐히 통과… 16분 만에 커피 배달

주문 주문을 위해 먼저 ‘뉴비’ 주문전용 플랫폼 ‘뉴비오더’에 접속했다. 첫 화면에 로봇배달이 가능한 10여 곳의 음식점 목록이 나타났다. 이 중 한 편의점에서 커피 세 병을 입력하고 건대 청심대를 약속장소로 설정했다. 현재 ‘뉴비’는 약속장소로만 호출할 수 있다. 건국대 캠퍼스 안에는 약 30곳의 약속장소가 지정돼 있다. 다음으로 결제 단계. 주문금액은 1만 원이 안 됐지만 배달이 가능했다. 모든 가게의 최소주문 금액이 ‘0’원이었다. ‘뉴비’에 ‘커피 한 잔도 배달해요’라고 쓰인 문구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배달료는 1000원, 게다가 첫 주문은 무료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간편하게 결제를 마쳤다.

주문 접수 주문을 마치자 3분 간격으로 ‘결제 완료’와 ‘주문 접수’를 알리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떴다. ‘뉴비오더’는 카카오톡과 연동돼 있어 배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배

‘뉴비’의 배달 과정



❶ 배달로봇 ‘뉴비’가 건국대 캠퍼스 안에 대기하고 있다.



❷ 주문 플랫폼 ‘뉴비오더’를 이용해 캠퍼스 내 약 30곳의 ‘약속장소’로 배달을 요청할 수 있다.



❸ 건널목에서 달리는 차량과 마주친 ‘뉴비’는 잠시 멈춰 선 뒤 출발했다.



❹ ‘뉴비’가 편의점에 도착하자 직원이 커피를 싣고 있다.



❺ 배달이 완료되면 휴대전화로 전송된 버튼을 눌러 물건을 수령하면 된다.

달이 완료되기까지 총 5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배달 시작 ‘주문 접수’ 메시지를 받은 지 10분 뒤 ‘배달 시작’ 메시지가 올랐다. 정류장에 서 있던 ‘뉴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배달로봇이 다니는 길은 사전에 최적경로를 매핑(지도화)해둔다. 쉬운 예로 로봇청소기를 가정에서 사용할 때 사용자가 청소 구역을 직접 설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홀로 거리를 나선 ‘뉴비’는 울퉁불퉁한 인도도 안정적으로 달렸다. 속도는 대략 3km/h. 사람 걸음걸이와 비슷하다. 로봇이 장애물과 부딪혀 넘어지거나 길을 잃어 방향을 못 잡는 경우 관제실로 연결되고 즉시 현장요원이 투입된다.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뉴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교차로에서 차가 달려왔다. 순간 차와 ‘뉴비’가 동시에 멈춰섰다. 동행한 현장요원은 “사람이 많은 곳이나 달려오는 차를 봤을 때는 스스로 속도를 낮춘다.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일단 멈춘다”고 했다. 충돌은 없었다.

편의점 도착 10분 만에 공학관에서 696m 떨어진 편의점에 도착했다. 내비게이션상 사람 걸음걸이로는 12분이 걸리는 거리다. 편의점 직원이 나와 커피 세 병을 ‘뉴비’ 안에 담았다. 배달로봇이 상점에 도착하면 도착 메시지와 함께 ‘적재함 열기’ 인증버튼이 가게로 전송된다. 버튼을 누르면 뚜껑이 열린다.

약속장소 도착 편의점을 나선 ‘뉴비’는 6분 만에 370m 거리의 청심대에 도착했다. 대기장소에서 편의점을 거쳐 약속장소까지 1km가 조금 넘는 거리를 오가는 데 총 16분이 걸렸다. 주문한 지 19분 만이다. ‘뉴비’가 도착하자 이번엔 취재진 카

카오톡으로 ‘적재함 열기’ 버튼이 전송됐다. 적재함 속 보냉백 안에 커피 세 병이 안전하게 들어 있었다. 커피를 꺼낸 뒤 적재함을 닫았다. ‘뉴비’는 원래 있던 대기장소로 향했다.

‘라스트마일’ 물류비용 확 줄어들까

직접 이용해본 배달로봇은 배달거리가 짧거나 주문금액이 적어 배달원을 부르기 어려운 경우 활용하면 편리할 듯했다. 기술적으로는 아무리 먼 거리라도 운행하는 게 가능하지만 반경 1.5km 이내를 최적 서비스 범위로 본다. 특히 ‘뉴비’는 이전까지 배달이 불가능했던 주스나 커피 등 소규모 배달로 서비스 범위를 특화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캠퍼스 인근에서 만난 한 협력업체 점주는 “수요가 있어도 주스 한 잔, 커피 한 캔을 배달하기 위해 배달원을 고용하는 건 타산이 맞지 않는다. 게다가 배달원은 물건을 가지러 오는 데만 20분가량 걸린다. 배달로봇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줬다”고 말했다. 물류에서는 라스트마일(소비자에게 가는 최종 단계)이 전체 물류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배달로봇이 비용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는 배달로봇의 상용화 후 배달료가 가격저항선인 1500~20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면 접촉을 꺼리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도 향후 소비자들 사이 배달로봇을 선호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성은 팀장은 “갈수록 소비자들 사이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데다 범죄 우려가 큰 여성 소비자들 사이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유행 때처럼 격리환자

“

갈수록 소비자들이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데다 범죄 우려가
큰 여성 소비자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유행 때처럼 격리환자나
약국에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약품배달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

나 약국에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약품배달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비싼 보험료’ 과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배달
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 2억 1000만 달러(약 2700억 원)
에서 2026년 9억 6000만 달러(약 1조 2500억 원)로 네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배달로봇뿐 아니
라 서비스로봇을 중심으로 한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도 엄청
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로봇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통신,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센서, 제어 등 각종 첨단기술
의 융·복합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로봇이 상용화에 성공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동 중 수집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침해
가능성, 비싼 개발비, 배달 기사들의 일자리 침범 등은 향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업계의 가장 큰 현
안은 ‘운행안전인증’과 ‘실외이동로봇 책임보험’이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최대 무게와 속도 등 16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운행안전인증 심사기준을 두고 있다.
이 기준을 통과해야만 실제 로봇 운행이 가능하다. 실외이
동로봇은 보험·공제에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운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물적·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보
상하기 위해서다.

이 팀장은 두 가지 모두 법률 주체와 업계가 지속해서 논
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당장 운행안전인증 심사
기준이 마련됐지만 업체마다 다른 규격으로 배달로봇을 제
작해온 데다 심사기준이 현실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는 개정
안 시행 이후에도 정부와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보험 역시 사람과 로봇 사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
우 로봇의 책임을 지나치게 크게 본 측면이 있다. 배달로봇
으로 인한 실제 사고 위험률을 산정할 수 없는 탓이다. 이론

차보다 사고 가능성이 훨씬 낮은 데 비해 보험료도 비슷하
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이 역시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보험료를 재조정해나가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네다섯
개 업체에서 당장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배
달로봇 시장이 문을 열 수 있는 기본적인 제반 근거는 마련
됐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K**

조윤 기자

1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자동차’로 규정된 ‘배달로봇’, 인도 통행 가능해진다

2023년 상반기 정부가 개정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법(지능형로봇법)’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는 배달로봇 등이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상 자율
주행로봇은 ‘차마(車馬)’로 규정돼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불가
능했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행로봇을 ‘차마’에서 제외해 보도통행이 가능
하도록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안전성을 갖춘
로봇만 실외 이동이 가능하도록 운행안전인증 체계와 관련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로봇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인
적·물적 배상을 위한 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뒀다. 국
회는 이 같은 내용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법이
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을 최대 질량 500kg·최대 속도 15km/h
이하로 규정했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신호일 경우라도 일단 정
지한 뒤 다음 보행 신호에 건널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로봇은 운
행에 필요한 알림음을 내도록 했다. 이밖에 경사로 주행, 비상정
지 기능, 장애물 회피 주행 능력 등의 운행 인증 기준을 뒀다.
실외이동로봇 책임보험 가입 금액 기준은 사망 혹은 후유장애
발생 시 1인당 1억 5000만 원, 부상 시 3000만 원, 재물 멸실 혹
은 훼손 시 사고 당 10억 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만을 보
장하는 전용 상품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월 ‘민관합동 로봇
보험 개발협의체’를 발족하고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 보험·공제상품과 표준약관을 개발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딩가동'

어서와! 딩가동은 처음이지? 중랑구 청소년 온 마을이 돌본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나이지리아 속담이 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말이다. 아프리카에는 이와 비슷한 속담이 많다. ‘아이는 한 가정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다(우간다)’, ‘아이의 부모가 누구이건 양육의 책임은 지역사회에 있다(탄자니아)’,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스와힐리)’ 등 모두 나이지리아 속담처럼 한 아이를 건강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전폭적인 도움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학술적으로도 증명됐다. 195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에밀리 워너(Emily Werner)는 하와이 카우아이섬에서 신생아 833명이 18세가 될 때까지 추적하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카우아이섬은 하와이 8개 섬 중 실업자와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가 많은 피폐한 곳이었다. 섬에는 사회 부적응자가 넘쳐났으며 범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았다. 연구 역시 아이들이 어떻게 범죄화돼 가는지 밝혀내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고아나 범죄자 자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고위험군 201명을 따로 분류하고 그들에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서울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딩가동' 1번지. 만 12~19세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딩가딩가 놀고 가라'는 취지에 맞춰 청소년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포켓볼, 탁구 등을 할 수 있는 게임존과 노래방은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다. 사진 ©영상미디어



게 집중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다. 고위험군 201명 중 3분의 1인 72명이 출생이나 환경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예외'를 보여준 것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거나 학생회장에 선출되고 미국 본토 명문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등 모범적으로 자라났다. 에밀리 워너는 이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나 형제자매, 혹은 학교 선생님이나 친절한 이웃 등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믿어주고 편이 돼 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모두 한 명 이상 있었다는 점이다.

아이들 위해 힘 모은 지역사회

서론이 길었지만 서울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딩가동'을 설명하기에 이만한 예가 없다. 딩가동 1번지를 방문하니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딩가동 건물부터 지역주민의 기부였다.

“딩가동 1번지는 1988년 윤기성 씨가 자신의 집을 마을에 기부한 건물이에요. 처음에는 경로당으로 기부했어요.

이곳을 이용하던 어르신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건물 앞에 송덕비를 세웠어요. 청소년 공간으로 재단장할 때도 자녀분들이 흔쾌히 허락했고 저희도 송덕비를 잘 보존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딩가동 1번지를 담당하고 있는 중랑구청 아동청소년과 임양지 주무관은 송덕비의 영향인지 아이들이 고마움을 표시할 때 “커서 딩가동에 1억원 기부할게요!” 같은 말을 종종 한다며 웃었다. 다세대주택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이 혼재돼 있는 구도심에 위치한 딩가동 1번지는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그래도 감각적인 외관을 보니 아이들을 위한 공간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다만 입구 앞에 무척 이질적인 비석이 의아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뒤에는 꽤 훈훈한 일화가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딩가딩가 놀고 가라’는 뜻의 딩가동은 중랑구를 대표하는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다. 2021년 2월 신내동 딩가동 1번지를 시작으로 현재 면목동, 묵동, 망우본동 등 딩가동 5번지까지 개소돼 운영 중이다. 만 12세에서 19세 청소년만 이용 가능하며 센터마다 청소년지도사가 상주하고 있다.



2번지



3번지



5번지



4번지

서울 중랑구를 대표하는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딩가동'은 현재 5번지까지 개소돼 운영 중이다. 면목동에 있는 딩가동 2번지는 2021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목동의 딩가동 3번지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면목2동의 딩가동 4번지는 댄스연습실과 무대를 갖췄다. 양원지구에 있는 딩가동 5번지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2~5번지는 공간마다 다양한 특색이 있다. 사진 중랑구청

2018년 8월 청소년 휴카페 '면목동 친구들' 운영이 중단된 것이 딩가동 설립의 계기가 됐다. 베드타운 이미지가 강한 중랑구는 노후된 주거단지가 많고 주차장이나 공원 등의 인프라가 부족했다. 청소년 시설 역시 두 곳의 수련관이 전부였다. 양원지구 등 신시가지 입주가 시작돼 전입 입구가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는 물론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계층 자녀 비중 또한 높다보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간담회나 민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청에 청소년전용공간 조성을 끊임없이 요청했다.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나서 구청을 움직인 것이다.

99번지까지 만들어 주세요!

중랑구에서 유일하게 직영 운영하는 딩가동 1번지는 가정집을 개조한 만큼 특유의 아늑함이 돋보였다.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구성된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게임존과 노래방, 포토존 등이 있는 지하 1층이다. 게임존이라고 해도 온라인 게임이 아닌 포켓볼이나 축구 등 테이블 게임이다. 50분씩 예약제로 운영되는 노래방은 일반 영업장

못잖게 빠르게 신곡이 업데이트된다. 한편에는 유행하는 레터링 네온사인으로 꾸민 여학생들의 인증샷존이 있다. 다락방처럼 꾸민 2층은 조용한 휴식공간이다. 서가에는 인기 만화책이 가득 꽂혀 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PC도 무료로 대여해준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한가롭게 만화책을 보거나 노트북을 빌려 게임을 하거나 숙제를 한다. 딩가동 1번지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상주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가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인사는 물론 근황 등을 수시로 묻는다는 것이었다.

“모든 청소년전용공간이 그렇듯 딩가동 역시 최대한 아이들에게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둡니다. 다만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은 다양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훌륭한 정서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와서 ‘하루가 너무 무섭고 힘들었다’며 엉엉 울고 간 일이 있는데요. 그 아이에게 딩가동은 단순 공간이 아닌 아는 어른이 있는 집이었을 것입니다.”

임양지 주무관은 우는 아이를 달래며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계약서는 제대로 작성했는지, 최저시급에 대해 알

고 있는지 어른이 가르쳐줘야 할 것들을 말해줬다고 했다.

딩가동 2번지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전문 단체들이 맡고 있고 청소년지도사 등이 상주한다. ‘2021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덩가동 2번지는 간식으로 유명하다. 입구 안쪽 정면에 놓인 간식통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가득이다. 밥을 먹고도 뒤돌아서면 허기질 나이, 아이들이 배고픈 이유는 저마다 다양하다. 과자통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이들의 출출한 배를 채워준다. 간식을 먹기 위해 매일 덩가동 2번지에 들르는 아이들도 있다. 이밖에도 활발한 프로그램 기획과 봉사 등으로 언제나 북적이는 덩가동 3번지, 댄스연습실과 야외무대까지 갖춘 덩가동 4번지, 새 아파트가 즐비한 양원지구에 생긴 덩가동 5번지까지 다섯 곳 모두 운영 방식이나 공간 구성 등은 차이가 있지만 저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아이들은 구청장에게 99번지까지 만들어달라고 요청 중이라니 덩가동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묵직하게 다가온다.

아지트 넘어 안전망 역할까지

딩가동의 인기는 놀랍다. 언제 어느 시간에 가도 아이들로 북적인다. 덩가동 1번지의 경우 개소 첫 달 총 이용자 수 52명으로 시작해 지난 7월 여름방학에는 1600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다. 아이들은 어느 센터의 삼진아웃제(3번 이상 경고를 받을 시 이용제한)가 제일 엄격한지, 어느 센터의 노래방 업데이트가 가장 빠르지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한다. 또 지점별 혼잡도도 실시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공유할 정도라니 덩가동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딩가동의 인기 비결은 단순하다. 온전히 아이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다. 공간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청소년으로 구성된 공간창작단을 구성해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규칙부터 프로그램 기획까지 직접 꾸려가도록 한다. 물론 다른 지역도 이용 대상자인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하지만 덩가동은 한발 더 나아간다. 최소한의 안전과 예산만 조율할 뿐 아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된다고 피부로 느낄 만큼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2022년 12월 덩가동 1번지 2주년을 기념한 축제 덩가랜드가 열렸다. 플랜카드 왼쪽에 2주년을 기념해 아이들이 작성한 롤링페이퍼가 걸려있다. 사진 중앙구청

딩가동 센터마다 이용시간부터 이용대상, 별칭 내용 등이 조금씩 다른 이유다. 덩가동 캐릭터 공모에서 씨앗을 형상화한 ‘딩가둥이’로 당선된 학생과 류경기 중앙구청장이 5년 무상 저작권 이용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유명한 일화다. 5년을 다 채우면 덩가둥이를 그린 학생에게 구청은 저작권료를 지불한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아이들은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은 물론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지역사회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여게 되는 것이다.

딩가동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19 기간 공간에 비치된 데스크톱과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을 도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또 이용 청소년들을 면밀히 관찰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연결해주기도 한다. 아이들의 놀 공간을 넘어 안전망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사회는 과거처럼 서로의 가정과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돌보는 것이 불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덩가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안전한 마을이 필요하며 지역사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아이는 가정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며 양육의 책임은 지역사회에 있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2023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가 아닐 수 없다. **K**

강은진 객원기자

경기 연천 고대산자연휴양림

고대하던 숲속 작은 집서 도토리비 맞으며 가을 야영

길고 긴 여름도 끝이 보인다. 공기에 습기가 빠지고 모처럼 솔솔 불어오는 초가을 바람이 기분 좋은 주말, 나들이 삼아 안보 관광을 떠나볼까 싶어 지도를 살펴본다. 경원선 철도가 북을 향해 달리다가 멈춘 곳에 우뚝 선 고대산! 시선을 사로잡는다. 황금빛 철원평야와 백마고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 손닿을 듯 북녘땅이 가까운 곳에 이렇게 어여쁜 숲이 자리잡고 있다니 놀랍다.

경기 북부의 시설 좋은 자연휴양림

경기 남부에는 용인자연휴양림과 의왕바라산자연휴양림이 있다. 그런데 왜 경기 북부에는 자연휴양림이 없는지 늘 의문이었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어 휴양림 조성에는 최적의 조건일 텐데 말이다. 그러던 차에 2017년 드디어 연천 고대산에 공립 자연휴양림이 오픈했다.

경기 연천군 신서면에 자리한 고대산자연휴양림은 행정구역상 연천이지만 강원 철원군과 경계에 있다. 연천 중심과는 꽤 거리가 있고 오히려 노동당사, 도피안사 등 철원 주요 관광지가 지척이다. 경원선 신탄리역에서 1.2km가량 거리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좋다. 주말에 길 막히는 것이 싫다면 남쪽, 동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향하길 권한다. 고대산자연휴양림으로 오고 가는 길은 교통체증 없이 비교적 한산한 편이다.

고대산은 높이 832m, 경기 연천 신서면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사이에 솟아 있는 산이다. 정상에 서면 철원평야와 6·25전쟁 격전지인 백마고지뿐 아니라 금학산, 북대산, 지장봉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암반과 암릉이 발달해 북동쪽 골짜기의 표범폭포에서 흐르는 물이 유명한 동막골 계곡을 지나 한탄강, 임진강까지 흘러 들어간다. 고대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이다. ‘큰 고래’라 불려 고대가 됐다는 유래도 있고 참숯으로 유명한 신탄리란 지명과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 어찌 됐든 골이 깊고 높아서 고대산이 된 것은 분명하다. 그만큼 고대산은 그 비범한 기운과 거친 맛으로 산객을 유혹하는 곳이다. 고대산자연휴양림이 생기기 전부터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었고 이제는 그 천혜 환경을 등산객과 휴양객이 함께 나누고 있다.

고대산자연휴양림 예약방법



고대산자연휴양림은 통합예약시스템인 숲나들e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선착순 예약이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다음 6주 차 일주일분 예약을 개시한다. 예를 들어 8월 23일 수요일 오전 9시에 다음 6주 차 일주일(9월 27일~10월 2일)분을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그중 주말분은 특히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대기제도 운영한다. 선착순 예약에 실패해도 대기를 걸면 1·2·3순위까지 순서대로 예약 가능성이 있다.

주소 경기 연천군 신서면 고대산길 84-79

전화 031-834-2200

예약 숲나들e (www.foresttrip.go.kr)

시설 숲속의 집 6인실 7동, 4인실 7동, 산림문화휴양관 1동(6실), 야영데크 20개

바비큐 즐기며 보내는 아기자기한 숲속 하루

신탄리역을 지나 등산객 무리를 따라 오르다보면 꽤 높은



- 1 고대산자연휴양림의 숲속
야영장은 아늑하고 전망도 좋다.
- 2 동화 속 나라를 연상시키는
고대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들.
- 3 바비큐 하기 좋은 테라스 공간.





(위) 남녀노소는 물론 휠체어 등을 타는 교통약자도 사용할 수 있게 턱이나 계단을 없앤 무장애탐방로. (아래) 가족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숲속 놀이터.

곳에 고대산자연휴양림이 자리하고 있다. 경사가 있는 길을 올라가면 관리소 앞에 썩썩하게 사찰 당간지주처럼 고대산 자연휴양림 이름표가 서 있다. 그 옆 큰 돌에 새겨진 글귀가 방문객을 맞는다.

‘사랑과 행복을 주는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 ‘오늘 하루가 선물이에요.’

기분좋은 글귀가 환영 인사를 건넨다. 거친 고대산과는 달리 고대산자연휴양림은 예쁘고 아담하다. 먼저 방문자센터 뒤로 산림문화휴양관 2층 건물이 서 있다. 휴양관에는 5인실, 8인실이 있고 야외에 바비큐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오르면 숲속의 집들이 등장한다. 녹색 지붕의 나무집이 동화 속 집들을 연상시킨다. 황조롱이, 곤줄박이, 산까치 등 새 이름으로 된 집들은 6인실이다. 제일 끝의 소쩍새동은 최근 생긴 장애인 우선 객실이다.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더 오르면 담비, 하늘다람쥐, 청솔모라는 이름의 4인실 3동이 나란히 서 있다. 한 단 더 오르면 산철쭉, 들국화 등 꽃 이름의 4동이 ‘ㄱ’자로 배치돼 있다. 역시 4인실인데 동물 이름 숲속의 집과 다른 점은 나무집이

아니라 벽돌집이라는 것이다.

고대산자연휴양림은 바비큐 즐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이 나 있다. 특히 숲속의 집 테라스에 자리한 아늑한 바비큐 공간은 누가 봐도 탐이 난다. 비가 와도 걱정 없이 아빠가 구워주는 고기를 먹으며 수다 꽃을 피우는 가족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숲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를 쫓아 진달래동 뒤흘 숲속 놀이터를 찾아간다. 쪽쪽 뻗은 낙엽송들 사이, 예쁜 통나무집이 있는 밧줄 놀이터에 햇살이 내린다. 아이들이 신나게 밧줄을 건너고 있다. 엄마 아빠는 관광객 자세로 편안한 나무의자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걷고 싶은 무장애 산책로도 잘 정비돼 있으니 산책로를 따라 고대산의 숲내음을 느껴봐도 좋겠다.

도토리 비가 내리는 야영장

고대산자연휴양림에는 야영장도 있다. 숲속의 집 4인실을 지나 오른쪽으로 가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나오고 야영장이 보인다. 휴양관 뒤편 숲속이라고 보면 된다. 야영장으로는 차량 진입이 안 되니 주차하고 산비탈을 올라야 한다. 산기슭 여기저기에 숨어 있듯 테크들이 앉아 있다. 테크들이 멀찍이 떨어져 각각 독립적인 것이 장점이다. 1~6번 테크 정도까지는 오를 만하지만 이후 뒤흘 테크들까지 여정은 등산에 가깝다. 짐을 옮기려면 매우 힘들다. 우스갯소리로 야영장을 ‘고말라야(고대산+히말라야)’라고 부른다. 오죽하면 이런 별칭이 생겼을까? 야영테크에서 캠핑을 하려면 필히 가벼운 등짐을 져야 한다. 하단 테크는 편의시설에서 가깝지만 상단 테크는 거리도 멀고 숲이 깊다. 혼자라면 무서울 정도다.

휴양림 숲속에는 유난히 참나무가 많다. 깊은 밤 텐트를 두드리는 “투둑” 소리에 비가 오는 줄 알았다. 아침에 보니 땅에는 비 온 흔적이 없다. 대신 테크와 텐트 주위에 도토리가 가득하다. 밤새 내 숙면을 방해한 범인이 도토리였다니, 울창한 참나무들이 도토리 비를 내려주는 고대산 숲속, 내년 가을을 또 기약하고 싶다. ☑

안윤정 여행작가

여행작가이자 휴양림·캠핑 여행 전도사다. 주말마다 전국 방방곡곡에 발도장을 찍고 있다. <우리는 숲으로 여행간다> <캠핑으로 떠나는 가족여행> <숲에서 놀자>(공저) 등을 썼다. 산림청 매거진 <숲>, 산림조합 월간지 <산림>, 국립공원 블로그 등 각종 매체에 숲 여행을 소개하고 있다.

고대산자연휴양림 주변 돌아보기

재인폭포

한탄강 주변은 오래전 화산활동이 있었던 곳이다. 재인폭포는 연천의 대표적 관광지로 제주도처럼 주상절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북쪽 지장봉에서 흘러내려온 작은 하천은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벽으로 쏟아져 장관을 연출한다. 평지에서 움푹 내려앉은 커다란 협곡에 생긴 폭포라 더 신비롭다. 폭포에 얹힌 '재인'의 슬픈 전설처럼 옥색 물빛이 아름다우면서도 애잔하다. 전망대와 출렁다리도 어우러져 신비로운 비경 감상에 일조하고 있다.

주소 경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산21



전곡선사박물관

연천 전곡리는 동아시아 최초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로 아이들과 선사시대로 흥미로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이다. 그 유적지 안에 은빛 타임머신을 연상시키는 선사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주먹도끼를 비롯해 호모에렉투스, 호모사피엔스 등 구석기인들이 사용한 도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인류의 진화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유익하다. 이왕이면 박물관 미션 투어도 참여해보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스럽다.

주소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433번길 2 | 전화 031-830-5600



호로그루

매년 8월이면 통일의 염원을 담은 해바라기들로 가득 차는 곳. 연천의 3대 고구려 유적 중 하나인 호로그루다. 전략적 요충지였을 이곳에 성을 쌓았고 그 성은 지금 좋은 나들이 장소가 됐다.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전시관도 살펴보고 조금 진지하게 호로그루를 느껴보자. 어린아이들도 연 날리고 뛰어놀기 좋으니 발걸음이 아깝진 않다. 탁트인 푸른 들과 유유히 흐르는 임진강은 누구나 남기고 싶은 풍경이다. 9월 8~17일 호로그루성 일대에서는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도 열린다.

주소 경기 연천군 장남면 장남로 163번길 128



송의전

연천에는 고려 왕조의 사당인 송의전이 남아 있다. 송의전에는 태조 왕건을 비롯한 4명의 왕과 신승검, 강감찬, 정몽주 등 고려 충신 16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고려 유민을 달래고 상생하려는 조선 왕조의 노력이 엿보이는 장소다. 종묘에 비하면 작고 초라하지만 앞을 유유히 흐르는 강물, 600년이 넘는 느티나무 고목들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주소 경기 연천군 미산면 송의전로 382-27



노동당사

행정구역상 강원 철원군이지만 고대산자연휴양림에서 10km 거리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1946년에 완공된 곳으로 6·25전쟁 전까지 북한의 노동당사로 사용된 건물이다. 1850㎡ 면적에 지상 3층 콘크리트 건물이다. 한 가수의 뮤직비디오에 나와 유명해졌으며 지금도 각종 행사나 음악회 등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주소 강원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3-2 | 전화 033-450-5558



쌍둥이의 변덕

퍼스널 컬러



역할놀이



까다로운 손님



좁은 고통의 통로를 지나더라도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누구나 달콤한 와인은 거절하지 않는 법. 인생의 쓴맛은 너 혼자 마셔야 한다. 즐거움의 복도는 널찍해서 길고 화려한 행렬을 들일 수 있지만 좁은 고통의 통로를 지날 때 우리는 모두 한 줄로 지나가야 한다.’ 미국의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Ella Wheeler Wilcox)의 ‘고독’이라는 시의 부분이다.

누군가 어두운 실패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잠시 상대를 위한 짧은 위로와 동정은 할 수 있지만 곁에 두고 오랫동안 슬픔의 짐을 함께 나누기는 힘들다. 오히려 상대의 실패와 불행이 나에게 전염되지 않을까 경계하며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상대가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면 성공의 후광이 자신에게도 비추기를 원하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려 한다. 윌콕스의 ‘고독’은 이용가치에 따라 상대를 다르게 대하는 기회주의적인 관계의 쓸쓸함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상대를 그렇게 대한다면 상대 역시 나를 같은 식으로 대할 것이다. 쓸모없어지는 순간 내 처질 걸 안다면 깊은 속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깊이 다가가지 못해 걸도는 관계는 고독할 수밖에 없다.

윌콕스의 시를 읽으며 스치듯 지나갔던 ‘고독한 관계’가 떠올랐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은 첫 책의 인연으로 알게 된 A씨였다.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 초청 강의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낯선 사람들과 식사 자리가 빈번해진다. A씨는 지방의 한 강연에서 알게 된 사업가였다. 마음이 힘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자주 연락해왔다. A씨의 친화력 때문인지 친한 사이가 됐다. A씨는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나를 소개했고 회사 홍보물에 들어갈 글을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잠깐의 빛나는 시간이 지나자 A씨는 가장 먼저 곁을 떠났다. 이런 경험이 쌓이다보면 관계란 상대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자기애’에 불과한 것이라는 회의가 든다. 그래서 타인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고독하고 쓸쓸해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상황이 언제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쓸모를 추구하는 마음은 쓸모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각박한 삶을 알게 해준다. 기회주의자의 마음은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본능을 깨우쳐준다. 이런 앎이 있을 때 타인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돌이켜보면 A씨 역시 성취의 기쁨에 공감해주던 좋은 친구였다. 그리고 혼자 있어야 할 때 혼자 있게 해준, 그때의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마음에 대한 공감이 있을 때 이기적인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긴다. 윌콕스의 시를 다시 읽으며 나라면 고독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웃어라, 온 세상이 나와 함께 웃어서 행복할 것이다. 울어라, 마음껏 혼자 우는 만큼 삶은 깊어질 것이다.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달콤한 와인은 함께 마실 수 있어 즐겁고 혼자 맛봐야 하는 인생의 쓴맛은 나만의 것이어서 소중하다. 널찍한 즐거움의 복도는 길고 화려한 행렬을 들일 수 있어, 아름답고 좁은 고통의 통로를 지날 때는 한 줄로 지나야 해서 애뜻하다.’ K



신기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인드풀링(Mindfulness) 대표이자 ‘마음 찾기’ 유튜브를 운영하며 한부모가정 모임인 ‘그루맘’ 교육센터장이다.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5년 만의 내한공연



공연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손열음

유럽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인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준비했다. 독일 서남부 지방을 대표하는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는 2017년부터 피에타리 잉키넨이 수석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일본 순회공연을 시작으로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등에서 공연했다. 한국은 2012년 공연 이후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5년 만의 내한공연이다.

손열음은 2011년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준우승,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 연주상, 콩쿠르 위촉 작품 최고 연주상 등 국제대회를 휩쓸었고 다양한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평창대관령음악제의 제3대 예술감독을 지내며 탁월한 감각과 기획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바그너의 '탄호이저 서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3번', 베토벤의 '교향곡 7번' 등을 선보인다.

일시 9월 19일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공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이탈리아 오페라 극장 최초의 여성 음악감독 옥사나 리니우와 라흐마니노프를 선보인다. 바이올린은 2000년 장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 최연소 우승, 2005년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르게이 하차투리안이 참여한다. 공연은 하차투리안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를 비롯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제2번 마단조 Op.27'을 선보인다.

일시 9월 17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뮤지컬 인사이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세계적인 명작 탄생을 꿈꾸며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을 집필한다. 원고 속에 직접 뛰어들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진행하던 중 두 원고가 뒤섞이고 캐릭터들이 원고 밖으로 빠져 나온다. 복수보다 시를 쓰고 싶은 햄릿, 사랑보다 칼이 더 좋은 줄리엣까지 셰익스피어는 캐릭터들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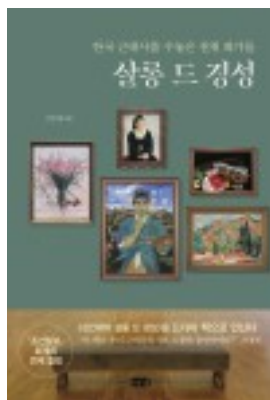
기간 9월 12일~12월 3일 장소 아트원씨어터 1관



연극 잘못된 성장의 사례

소도시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은주는 연구실에서 식물 속에 존재하는 저항성 유전자를 찾고 있다. 연구실 초창기 멤버인 박사과정 혜경과 논문 통과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 석사과정 예지 등이 함께한다. 한여름 무더위로 지역 일대가 정전되고 혜경은 교문 앞에서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서서히 지난 경험들을 떠올린다.

기간 ~9월 23일까지 장소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도서 살롱 드 경성

한국 미술계를 향한 전 세계의 관심이 뜨겁다. ‘프리즈’ 등 세계적 아트페어가 서울에서 열리고 김환기 등 한국 화가의 작품이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되기도 한다. 저자는 과거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술혼을 불태웠던 선구자들을 소개한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전쟁과 분단이라는 가혹한 시대를 뚫고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했던 예술가들의 삶을 다룬다.

저자 김인혜(해냄)



도서 실전 사례로 배우는 챗GPT 활용법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제는 일반인도 챗GPT를 가까이하며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때가 됐다. 챗GPT는 매우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필요한 사람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도록 해야만 한다. 저자는 실전 사례를 소개하며 챗GPT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비롯해 향후 챗GPT의 발전 방향 등을 다룬다.

저자 김영안, 김재금, 류승열(에이원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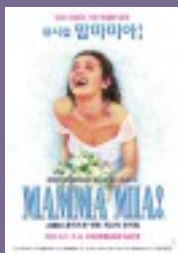
영화 차박-살인과 낭만의 밤

제76회 칸영화제 필름마켓 최고의 화제작이자 제8회 포틀랜드 호러영화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행복한 부부 수원(데니 안 분)과 미유(김민채 분)는 결혼 1주년을 맞아 낭만적인 차박여행을 떠난다. 여행 중 낯선 이가 등장하면서 일상은 순식간에 끔찍한 악몽으로 뒤바뀐다.

개봉 9월 13일

장가현 기자

우리 동네에서 보는 뮤지컬



맘마미아!

기간 9월 23~24일

장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파리넬리

기간 9월 23~24일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번개맨 전설의 시작

기간 10월 7~8일

장소 대전 한밭대학교 아트홀

공감 칭찬합니다 :)



720호 은퇴한 경주마와 학대받던 말들이 함께 지내는 '꽃자왈 말구조보호센터'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도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말은 예민하고 위험한 동물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원인이 인간들의 이기심 때문이라니 말들에게 미안하네요. '동물을 인간의 시선이 아닌 동물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김남훈 대표의 말에 공감합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도 그 사람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승연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9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보며 꾸던 꿈을 현실로 만든 장금자 카카오 파이프 대표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카카오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초콜릿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자신이 한 말을 직접 실천했다는 점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식 발효 초콜릿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게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김연재 서울 노원구 덕릉로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요즘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도서관이나 책방을 방문해보세요. 감성을 채우고 마음을 살피는데 독서만큼 좋은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 아름다운 동네 책방으로 아이들과 손잡고 색다른 여행을 떠나보세요.

표경숙 강원 원주시 부론면

디지털 <K-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K-공감 gonggam.korea.kr

blog blog.naver.com/mcst_pr

k v.daum.net/channel/3094

f facebook.com/wegonggam

youtube.com/weeklygonggam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K-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칭찬합니다'와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9월 20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2023

노인일자리 주간

시니어의 에너지, 우리 모두에게 시너지입니다.

#기념식

일시 : 2023. 9. 18.(월), 오전 11시

방법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 생중계

내용 : 노인일자리 우수 기관 포상, 축하공연, 생중계 참여 이벤트,
노인일자리 정책 포럼 등



#국민참여관

온라인

기간 : 2023. 9.18.(월)~9.22.(금)

방법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접속

내용 : 노인일자리 정책 및 행사현장 소개,
참여 이벤트 등(노인일자리 5행시, 숫자를 찾아라, 낱말퍼즐 등)



오프라인 언더스탠드 에비뉴

기간 : 2023. 9.18.(월)~9.19.(화)

장소 : 언더스탠드 에비뉴 (서울 성동구,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3번출구)

내용 : 노인일자리 정책 소개 및 상담, 환경 시너지 노인일자리
체험, 노인생산물 나눔, 참여 이벤트 등





엑스포 준비되어 있소이다.

BUSAN is good for the EXPO.

“Amazing BUSAN!”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열정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BIE 실사단은 “부산은 모든것을 갖춘 도시”라며 최고의 감동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오는 11월,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부산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3.4.2~7

BIE 실사단 방문 완료
(인프라 및 유치 열기 등 평가)

2023.6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경쟁 PT

2023.11

개최국 선정 투표
(171개 회원국 비밀투표)

유치 성공 시, 2030년 5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61조원 경제 효과
50만명 일자리 창출
3,480만명 방문 예상



World EXPO 2030
BUSAN, KOREA



World Expo 2030
Candidate